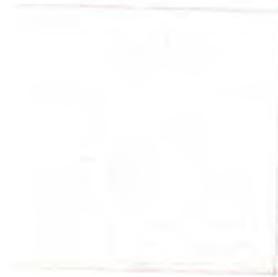


서원향사



書院亭祀
남계서원



서원향사



書院亭祀

별첨하기

1.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서원·향교에 대한 현지조사와 영상기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남계서원》(2010년), 《도동서원》(2009년)에 대한 현지조사 내용입니다.
2. 서원·향교 제례 동영상과 보고서는 임원총회, 제례준비, 제례(분향례, 석전, 향사) 등 제례를 위해 수반되는 전 과정을 수록하여 유교제례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동영상과 보고서 원문(PDF)은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www.nrich.go.kr)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4. 이 보고서는 크게 역사, 제례, 운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남계서원》은 김경신(제례)·정순우(역사)·이명진(운영), 《도동서원》은 김경신(제례)·이수환(역사)·최순권(운영)이 집필하였습니다.

발간사

서원書院은 지역별 학문 전통 기반 위에 설립되었던 사립 교육 기관으로서 학문 발전과 지역 여론을 형성하던 곳입니다. 서원의 이러한 특징은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조선 유학 전통을 확립하는데 토대가 되었습니다. 학문을 연구하고 후학을 배출하며, 지역 실정에 맞게 제정한 향약을 통해 풍속을 교화하였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성장하여 중앙에 맞서는 지역 세력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서원은 유교 문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전통문화를 간직한 요람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서원에 모신 인물에 제사를 지냄으로써 상징성을 유지하고, 사회 교육을 통해 한문학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구소는 2008년부터 서원향사에 대한 기록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는 그간의 영상기록과 함께 현지 조사한 남계서원과 도동서원의 향사를 《서원향사(남계서원·도동서원)》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남계서원은 소수서원에 이어 두 번째로 설립된 유서 깊은 서원으로, 배향 인물인 일두 정여창은 자유로운 사상과 넓은 식견을 겸비한 문인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도동서원은 사림파의 거두이자 조선 후기 개혁정치의 주역들을 육성하였던 한훤당 김굉필을 모시고 있으며, 한국 유교 건축의 입지 특성과 건축미를 잘 보여주는 서원 중의 하나입니다.

이 책에는 서원에서 지내는 제사를 중심으로 서원의 조직과 운영, 사회 교육 프로그램 등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서원이 전통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여전히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지역 유림들이 힘을 모아 새로운 유학 전통을 만들었듯이, 이 보고서가 향후 우리 전통을 새롭게 창조하는 데 귀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3년 6월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김 영 원



目次

009 I. 남계서원 향사

011 1. 남계서원의 역사

- 1) 남계서원의 역사적 배경
- 2) 남계서원의 운영과 주도세력
- 3) 남계서원의 내부 구조
- 4) 남계서원의 운영과 경제
- 5) 남계서원의 강학과 서책 관리
- 6) 남계서원의 제향인물

053 2. 남계서원의 향사

- 1) 분향焚香
- 2) 향사후祀
- 3) 제물祭物과 제구祭具





123 3. 남계서원 향사의 특징

125 4. 남계서원의 운영과 전승

1) 운영과 조직

2) 전승과 지속

139 남계서원 홀기





院書

I
●
남계서원향사

溪濂

南溪書院



1. 남계서원의 역사

1) 남계서원의 역사적 배경

남계서원은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 현 소수서원(紹修書院))에 뒤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서원이다. 백운동서원의 설립과정을 지켜 본 함양의 유림들은 남계서원의 설립에 그 형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이 설립과정에서 함양 유림들은 서원의 설립에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지방관을 포함한 관변 층의 절대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남계서원은 백운동서원이 건립되고 9년 뒤인 1552년(명종 7. 임자)에 함양 유림들의 주도로 건립되었다. 개암 강익(介庵 姜翼, 1523~1567)이 주도하고 소고 박승임(圃草 朴承任, 1517~1586)·사암 노관(徙庵 盧樸)·매촌 정복현(梅村 鄭復顯)·남계 임희무(藍溪 林希茂, 1527~1577) 등이 적극 참여하여 일두 정여창(養 鄭汝昌, 1450~1504)을 위한 서원 건립을 결의하였다. 우선 향내의 유림들이 쌀과 곡식을 부조하면서 건립을 위한 여론을 환기하였고, 동시에 당시 군수로 재직 중이던 서구연(徐九淵)이 강당 건립을 위한 물력을 지원하였다. 강당을 조성하던 중 서구연의 체적으로 중단되기도 했으나, 공사를 재개한지 7년 만인 1559년(명종 14)에 마침내 완성하였다.

물론 남계서원의 설립은 함양 유림들의 발의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이지만, 서원이 출현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은 성종 대 이후 중앙정치권력을 둘러싼 훈구세력과 사림세력의 오랜 대립과정에서 이미 배태되었다. 즉 남계서원이 백운동서원에 이어 두 번째로 건립될 수 있었던 것은 성종조 이래 꾸준히 성장한 사림과의 종사(從祀) 논의에서 연유된 것이다. 정여창은 점필재 김종직(佔畢齋 金宗直, 1431~1492)의 문하라는 사실에서 이미 사림의 일원으로 주목을 받았다. 또한 평생의 지기인 한훤당 김굉필(兼峰堂 金宏弼, 1454~1504)을 비롯하여 탁영 김일손(濶嶺 金一孫, 1464~1498)·추강 남효온(秋江 南孝溫, 1454~1492)·암계 유희인(林溪 俞好仁, 1445~1494) 등과 함께 기존의 훈구세력에 대항하면서 새로운 학풍을 만들고 있었다. 남효온은 정여창에 대해 '오경(五經)에는 정통하면서도 유독 시를 전공하는 선비는 취하지 않았다'⁰¹라고 하여 경학을 중시하는 그의 학문태도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그의 학문적 위상은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를 거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문묘 종사의 대상자로 주목받게 되었다.

정여창은 사화에 피화된 후 중종반정에 의해서 비로소 복관되었다.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사림세력은 사화로 인해 희생된 인물들에 대한 복권운동의 일환으로, 김굉필과 정여창에 대한 문묘 종사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수부 정광필(守夫 鄭光弼, 1462~1538)을 포함한 당시 조정의 중신들은 이들 두 사람의 도학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 문묘 종사를 반대하고, 그 대신 자손들이 사가에서 치제(致祭)하도록 하였다.⁰² 물론 이 시기는 아직 서

01 『추강집』, 〈冷話〉

02 『中宗實錄』 권 29, 12년 9월 29일(임인)

원이 등장하기 이전이었지만, 치제를 둘러싼 사림세력과 조정 훈구대신과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새로운 형식의 사우(祠宇)와 제향의식이 발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안의 하나가 곧 '현현이 도를 강론하던 곳에 사당을 세워서 치제'하는 형식이었다. 훈구파로서는 양대 사화로 희생된 김굉필과 정여창 등을 향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신진사림들이 자신들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적 동기가 있는 것으로 치부하고 그들에 대한 제사는 관이 주도하는 '공제(公祭)'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사제(私祭)'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남계서원은 이러한 중앙 정계의 움직임에 촉발된 함양 유림들의 주도로 건립된 것이다. 백운동서원이 수령인 주세붕(周世鵬, 1495~1544)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남계서원은 향내의 유림들이 먼저 주도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서원 설립의 명분을 예조의 계문에서 찾고 있다.

왕명을 내려 송조(宋朝)에서 염락제현(嚴洛諸賢)을 포송(褒崇)하던 고사를 모방하여 그가 평일 강도(講道)한 장소에 사우(祠宇)를 세워 봄·가을로 제사를 지내게 하고 해마다 그 집에 연봉을 주는 것을 영원한 규칙으로 삼게 하였습니다. 당시 강도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사우를 세우지 못하였는데, 그렇다고 공제(公祭)를 사묘(私廟)에 베풀자니 예(禮)에 근거할 바가 없을 뿐더러 형편 역시 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전에 군수(郡守) 서구연(西丘演)이 비로소 사우를 세우고 곁에 당재(堂재)를 설립하여 장차 예로서 신위를 봉안하고 선비를 모아 학업을 닦게 하려 하였으나 그 일을 성취하지 못하였는데 10여 년 후에 와서야 성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날의 사우 건립은 실로 선조(先朝)의 유명(遺命)을 따른 것입니다. 조정에 품달하지 않고 변조한다면 전일의 기묘(奇妙)와 다를 게 없어 제사지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¹⁰³

03 『明宗實錄』 33권, 21년 6월 15일(갑술)
 “命倣宋朝褒崇嚴洛諸賢故事，就平日講道之所，置立祠宇，春秋致祭，歲廩其家，以爲永式。而以當時無講道之所，故不立祠宇，設公祭於私廟，禮無所據，而勢亦難行，前者郡守徐九淵始立祠宇，傍設堂廡，且將奉安以禮，儲士以修，而未獲卒功，迄至十餘年，乃克就緒，第以今之建祠，實因先朝遺命，然若不稟朝命，而徑自變置，則無異於前日之家廟，而同於無祀矣”



위의 기록을 보면, 정여창에 대한 제사는 왕명에 따른 '공제'라는 것이 함양 유림들의 주장이다. 즉 중종의 왕명에 의해 정여창을 문묘에 종사하는 대신, 그가 강도^{講道}한 장소에 사우^{祠宇}를 세워 봄·가을로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을 영원한 규칙으로 삼게 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공제'라고 하는 것은 문맥으로 보아 '조정에서 내린 제수^{祭書}로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러나 위 계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중종 때에는 미처 사우를 세우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례상 사묘에서 '공제'를 지낼 수 없었으므로 정여창에 대한 향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수서원의 건립은 함양 유림들에게 정여창의 향사를 위한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사관은 남계서원의 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숨기지 않고 있다. 사관은 우선 정여창과 김굉필을 중종이 추증한 일로 보아 역시 근대의 큰 선비였을 것이니, 서원을 세워 제사지내는 것이 불가하지 않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들이 학문을 전한 것이 많지 않다는 점과 당시의 선비들이 서원을 분분하게 설립하여 새로운 뜻을 창출하기에 급급하니 오래갈 수 없을 것 같다는 비판적인 전망을 내 놓았다.⁰⁴ 이미 서원이 각 지역 사람들의 정치·경제적 욕구를 실현하는 도구로써 기능하고 있다는 날카로운 비판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04 『明宗實錄』, 권16, 9년 6월 15일(갑신) “書院之設非古, 南方多有之, 爲學者藏修之所, 爲其世教, 豈少補哉? 汝昌與全宏弼, 一時師友, 學問雖無傳者, 觀中廟追贈之舉, 亦近代大儒, 院以祀之, 有何不可? 第此時粉袍之輩, 不求諸心, 紛紛制作, 務出新意, 恐不能久也”

사관들의 이러한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남계서원은 함양 사람들의 바람대로 설립되었다. 당시 함양지역은 막 남명문도들이 영향력을 확대해 가던 시기였다. 당시 서원 설립을 주도하던 함양 개평^{介平}의 풍천노씨^{豊川盧氏}, 효리^{孝里}와 개평을 근거지로 하는 하동정씨^{河東鄭氏}, 함양 목현^{木峴}의 진주정씨^{晉州鄭氏}, 함양 거평^{巨平}과 국계^{國溪}의 진주강씨^{晉州姜氏}, 함양 우동^{遇洞}과 죽장^{竹場}지역에 세거하던 진주하씨^{晉州河氏} 등의 가문들은 모두 넓은 범위에서 남명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즉 남계서원의 건립은 남명문도들이 그들의 성리학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대상 인물이 바로 정여창이었다. 남계서원 설립 이후 1563년(명종 18)에는 남명 조식과 여러 문생들의 강론이 있었다. 1564년(명종 19)에는 남명의 고제로 함양군수에 재임하였던 김우홍^{金宇弘}이 동·서재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1565년(명종 20)에는 남명의 고제 오건^{吳健}이 남계서원에서 주자의 연보 등을 강론 하는 등 이 지역 남명문도들의 강회와 회합의 장소로 남계서원이 적극 활용되었다.

함양의 유림들은 남계서원이 설립되고 난 뒤, 이 서원이 일읍의 사실 서원으로 고착될 것을 우려하여, 바로 조정에 사액 청원을 하였다. 강익을 중심으로 한 함양의 사람들은 사액을 청하기 위해 조정에 상소문을 올렸는데, 여기에는 사액을 받고자 하는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실려 있다.

“저 임고^{林高}와 소수^{素秀} 두 서원은 모두가 한 때 옛 어진 이를 추모하는 자의 마음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조정의 명이 있거나 또는 사전^{祀典}에 실린 것도 아닌데 역시 모두 사액^{賜額}하고 반경^{班經}하였으며 겸하여 장회^{張 회}와 토전^{土田}을 하사하였으니 은전^{恩田}이 지극하였습니다. 더구나 이 사우는 선조의 유지^{遺址}에 의해 세

워진 것인데 총명^{聰明}의 하사가 어찌 저 두 서원의 밑에 놓일 수 있겠습니까. 신은 삼가 생각하건대, 정여창의 학행은 한 고을의 의표^{義表}가 될 뿐만 아니라 학사^{學士}의 모범이 될 만합니다. 그런 때문에 포증^{褒贈}의 은전은 선조에서 특별히 높았고 사자^{賜字}의 주모는 오늘날에 성하게 일어났으니 실은 인심이 다 함께 좋아해서 하는 일로 말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위로 조정에 주달하여 사액^{賜額}을 받게 아니한다면 끝내는 한 고을 선비들이 사사로 설립한 서원이 될 것이니, 사리로 볼 때 도리어 미안하고 영구히 유지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계술의 효도를 극진히 하시는 날에 혹 정액^{旌額}을 하사하여 널리 은전을 퍼신다면 위로는 선왕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고 아래로는 풍화의 고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⁴⁵ 하였다. 상이 그 건의를 예조에 내리니, 예조가 편액^{匾額}과 서책을 하사하여 권장하는 뜻을 보이기를 청하였다. 상이 그에 따라 이름을 남계서원^{南溪書院}이라고 하사하였으니, 예^禮이다.⁴⁵

05 『明宗實錄』 33권, 21년 6월 15일(갑술)

우선 함양 사림들은 이미 사액을 받은 임고서원과 소수서원의 예에 따라 노비와 전토를 환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과적으로 사액을 받고자 하는 이유가 앞서 말한바와 같이 제사를 관이 인정하는 '공제^{公祭}'로 설행하겠다는 것과 함께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남계서원 南溪書院 현판

한 것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계서원 측이 1554년(명종 9) 소수서원(백운동서원)에 뒤이어 사액을 받은 임고서원에 대해 거론한 이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고서원은 1553년(명종 8) 이 지역의 퇴계문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의 품관(品官)과 유생들이 주도하여 포은 정몽주(圃隱 鄭夢周, 1337~1392)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설립한 서원이다. 설립 사실이 경상도 관찰사 정언각(鄭彦幹)의 장계로 조정에 알려지자⁰⁶ 승정원에서는 곧바로 정몽주의 사당에 노비와 전결을 지급해 줄 것을 청하는 상언을 하였다.⁰⁷ 바로 이어서 명종이 편액을 하사하고 서책·노비·전결을 하사하는 일들을 소수서원의 예에 의해 시행하라는 전교를 하달하였다.⁰⁸ 남계서원의 사람들도 이렇게 빠른 기간 내에 사액이 이루어지길 기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남계서원은 약간 늦은 1566년(명종 21년, 병인)에야 '남계(南溪)로 사액되었다. '남계'는 서원 곁의 시내 이름이다.

사액되던 때에 옥계 노진(玉溪 玉溪, 1518~1578)은 다음과 같은 춘추향사의 축문을 찬술하여 일두 정여창의 공적을 기렸다.

| | |
|------------------|------|
| 학문은 성리학을 탐구하셨으며 | 學究性理 |
| 행실은 효도와 의리를 높이셨네 | 行隆孝義 |
| 우뚝하게 선각자가 되시었으며 | 蔚爲先覺 |
| 스승으로 선비에게 본이 되셨네 | 師式士類 |
| 예의로는 의당 향사함이 알맞아 | 禮宜稱祀 |
| 조정 명령이 넉넉하고 특별했네 | 朝命優異 |
| 고을사람이 흥기하고 사모하여 | 鄉邦興慕 |
| 서원을 건립하고 공경히 섬기네 | 建院祗事 |

한편 퇴계도 사액을 기려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시에서는 일두 정여창에 대한 퇴계의 존경심이 여실히 나타난다.

| | |
|---------------------------|---------|
| 함양은 당당한 인물 정공의 고을이니 | 堂堂天嶺鄭公鄉 |
| 백세에 전하는 풍모 길이 아름다운 향 사모하네 | 百世風傳永慕芳 |
| 서원에서 존숭함이 더럽히지 않음이니 | 廟院尊崇真不忝 |
| 어찌 문왕에 상응할 호걸이 없겠는가 | 豈無豪傑應文王 |

06 『明宗實錄』, 권16, 9년 6월 14일(계미)

07 『明宗實錄』, 권16, 9년 6월 15일(갑신)

08 『明宗實錄』, 권17, 9년 11월 2일(기해)

◎ 남계서원 연혁

| | | |
|----|--------------|---|
| 건립 | 1552년(명종 7) | · 정여창(鄭汝昌, 1490-1504)의 고향 함양에 강익(姜翼) · 박승임(朴承任) · 정복현(鄭復顯) · 임희무(林希茂) 등의 주도로 창립 결의 |
| | 1555년(명종 10) | · 원근의 비방으로 공사를 본격화하지 못하다가 고을 수령 서구연(徐九淵) 및 함양 사람들의 미곡 기부를 바탕으로 강당 건립 시작 · 중간에 부모 상을 당한 수령 서구연의 체직과 흉년, 후임 수령의 비협조로 강당 건립 중단 |
| | 1559년(명종 14) | · 신임 수령 윤확(尹確)과 함양 · 거창 · 안음의 지방관 및 사림의 기부로 강당 건립 완성 |
| | 1561년(명종 16) | · 묘우 건립 완성 · 정여창의 위판 봉안(2월 16일) · 관찰사 이감(李堪)에게 유생 공궤에 필요한 소금 · 어물 · 종이 · 노비 · 정철(鄭澈) 등을 정기적으로 지원 받는 경제적 조처 확보 |
| | 1564년(명종 19) | · 군수 김우홍(金宇弘)의 도움으로 동서재 건립, 그 아래 연못을 파 연꽃을 심고 주변에 매화, 대나무를 심음 · 각 건물의 당호를 짓고 현판을 걸음 : 강당(明誠) · 좌우협실(居敬齋), [集義齋] · 동재(養正齋) · 서재(輔仁齋) · 한(愛蓮軒, 詠梅軒) |
| 사액 | 1566년(명종 21) | · 관찰사 감사상(姜士昂)을 통해 중앙에 사액 요청(6월) · 서원 옆에 흐르는 시내의 이름을 따서 '남계학'이라 사액(7월) · 이 해에 서원의 재물이 안 갖추어진 것이 없고 곡물 또한 넉넉해지자 그 재물은 고을 사람들로부터 모은 것이라 하며, 쓸 데 없는 곳에 낭비하지 않고 경내 각 동과 서당, 훈인과 상사비에 도움을 주어 고을 내 서원의 위상을 높이기도 함(경명안(景命安)) |
| | 1570년(선조 3) | · 전사창(田舍倉) · 누상고(樓上庫) · 서번고가(西邊庫) 등 건립 |
| 이건 | 1597년(선조 30) | · 정유재란으로 서원 소실, 정경운(鄭敬運) 등이 위판 매안 |
| | 1600년(선조 33) | · 노사계(魯士契) · 정경운(鄭敬運) · 강위노(姜維魯) 등이 나촌(羅村)으로 이건 계획 · 이 때 전란으로 함께 퇴락한 신계서원(新溪書院)에 모시던 노진(盧震)과 합사하자는 논의와 함께 강익(姜翼)을 신계서원에 추향하자는 논의가 대두 · 배향(배이나, 병향)이나 배향(배이나)을 놓고 노진, 강익의 후손 및 문인들 사이에서 위차 논쟁 발생 |
| | 1603년(선조 36) | · 1596년(선조 29)에 수령 조동도(趙東道)가 주었던 속공답(續公答) 18마지기로 서원터를 확보 |
| | 1605년(선조 38) | · 이건 완료, 위패 봉안 |
| | 1611년(광해군 3) | · 위차 논쟁 끝에 1604년(선조 37) 정여창이 문묘에 종사, 신계서원이 독립해 나가면서 노진과 강익을 모심(노진 주향, 강익 배향으로 추정) |
| | 1612년(광해군 4) | · 남계서원은 옛터로 다시 이건 |
| | 1623년(인조 1) | · 인조반정, 북인정권 몰락 |
| | 1634년(인조 12) | · 강익의 후손이 신계서원에서 또 다시 병향을 주장하여 위차 논쟁이 불거지자 결국 정운의 권유로 남계서원에 별묘를 건립, 신계서원에 있던 강익(姜翼)의 위패를 별묘에 이안 |
| 묘법 | 1642년(인조 20) | · 유호인(兪好仁) · 정온(鄭溫)을 별묘에 병향, 남인계 서원으로 성격 변화 |
| | 1677년(숙종 3) | · 정온(鄭溫)을 별묘에서 본사(本祠)로 숭배(崇拜) |
| | 1686년(숙종 12) | · 남계서원에서 강익(姜翼)의 문집 『개암집(開巖集)』 개간(改刊) |

| | | |
|--------|--------------|--|
| 별 묘 | 1689년(숙종 15) | · 강익(姜翼)을 별묘에서 본사(本舍)로 승배(陞配) |
| | 1728년(영조 4) | · 이인좌의 난, 하동정씨들이 공을 세움, 노론계 서원으로 성격 변화 |
| | 1779년(정조 3) | · 정여창의 후손 정덕제(鄭德濟)가 함양 사람들의 공문을 거치지 않고 노론 관료 김종후(金宗厚)에게 청탁하여 남계서원묘정비문(南계서원廟誌文)을 받음 · 내용 중 성리학의 도통을 말하면서 화재 이전적을 언급하지 않은 점과 남계서원 건립에 고을 여러 사람이 간여하였는데 유독 강익의 이름만 언급하였다고 하여 노진의 후손이 도끼로 비문을 찍어 김종후의 이름을 파내는 묘정비 사건 발생 |
| | 1820년(순조 20) | · 별묘에 정여창 현손 정흥서(鄭興瑞) 추향 · 초창기 사람 주도에서 문중서원으로 성격 변화 |
| 기 타 | 1841년(헌종 7) | · 외삼문(外三門) 위에 후손 정환필(鄭煥弼)의 주도로 풍영루(楓影樓) 건립 |
| | 1849년(헌종 15) | · 1847년(헌종 13) 화재로 풍영루 중건 |
| | 1868년(고종 5) | · 별묘 훼손 |
| | 1871년(고종 8) | · 서원철폐령, 남계서원은 정여창을 향사한다는 이유로 존립 |
| | 1922년 | · 장판각 중건 |
| | 1935년 | · 서원지 간행 |

2) 남계서원의 운영과 주도세력

남계서원이 이렇게 이른 시기에 설립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함양 고을이 지닌 문화적 자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함양은 전통적으로 글과 예의를 숭상하는 풍속을 지니고 있었다. 이 고장 출신인 옥계 노진은 시(詩)에서 '우리 고장은 예부터 문헌이 성하여 아이들도 흔하게 글자를 알았다네'라고 하였고, 또 '백리의 마을에는 예속이 있고, 집집마다 자식 가르쳐 시서를 읽는다네'⁰⁹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함양은 다양한 문화가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안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5~6세기에는 가야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고, 7세기 초에는 신라와 백제가 그 주도권을 놓고 힘을 겨루었던 지역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함양이 다양한 문화를 섭취하고 융합할 수 있는 지역이었음을 뜻한다. 또한 함양지역은 인접한 전라도의 남원·운봉·장수지역과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가 있어 영·호남의 문화가 서로 소통하고 왕래하는 공간이기도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남계서원을 이룬 시기에 설립하게 한 힘의 원동력이 되었고, 또 뒷날 서원의 성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남계서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세력은 역사의 변천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졌다. 조선시대의 서원 중에서 남계서원 만큼 정치 상황에 따른 변화의 폭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곳은 찾기 어렵다. 남계서원은 초창기에 함양 지방의 주요 사족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 고문서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경임안(經任案)』, 『원록(院錄)』, 『부보록(復寶錄)』 등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계한 성씨는 함양 개평(介平)과 함양읍에 거주 하였던 풍

09 『옥계선생속집』

천노씨(豊川盧氏), 함양의 효리(孝里)와 개평을 근거지로 하는 하동정씨(河東鄭氏), 함양 목현(木峴)의 진주정씨(晉州鄭氏), 함양 거평(巨坪)과 국제(菊溪)의 진주강씨(晉州姜氏), 함양 우동(遇洞)과 죽장(竹場)지역에 세거하던 진주하씨(晉州河氏), 함양 송평(松坪)의 제주양씨(濟州梁氏), 함양 서평(瑞坪)의 나주임씨(羅州林氏), 그리고 함양 남효(南孝)의 동래정씨(東萊鄭氏) 등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일두 정여창의 본손인 하동정씨와 옥계 노진의 후손인 풍천노씨, 그리고 강익의 후손인 진주강씨, 경상우도의 대표적 명족인 진주하씨 등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이들 가문들은 모두 넓은 범위에서 남명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덕천서원의 초기 원생으로 입록된 정구(鄭逵)·하응(河應)·박이장(朴而章)·하훈(河訓)·안희(安喜)·문경호(文景虎)·정경운(鄭慶雲) 등도 남계서원에 동시에 입록된 인물들이다.

한편 임진왜란 기간 중 남계서원의 원임들과 유생들은 의병 창의를 위한 격문을 향내에 돌리는 등 의병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함양출신의 노사상(盧士尙)·노사예(盧士豫)·노주(盧周)·강린(姜麟)·박여량(朴汝樑)·정경운(鄭慶雲) 등이 의병활동에 가담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남명 조식(南冥 曹植, 1501~1572)의 문도들이었다. 정경운이 쓴 『고대일록(孤臺日錄)』에는 임란 시기 남계서원이 처했던 상황을 매우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임란 중에 남계서원은 폐허가 되었으며,¹⁰ 서원(書院)의 서책들은 다 흩어졌다. 임금이 직접 하사한 『주자대전(朱子大全)』 6권이 분실되었고,¹¹ 전란이 끝난 후에는 단지 『두시(杜詩)』만 전질(全秩)이 있을 뿐, 『어류(語類)』나 『성리대전(性理大全)』은 반 이상 흩어져 없어졌으며, 그 나머지는 전부 불에 타버렸을 정도로 철저히 파괴되었다.¹²

10 『孤臺日錄』, 乙未, 春二月, 1일

11 『孤臺日錄』, 제2권, 乙未, 8월 28

12 『孤臺日錄』, 제3권, 己亥, 1월 28일

파괴되었던 남계서원은 전후 사족들의 노력으로 빠르게 복구되기 시작하였다. 정유재란으로 건물이 소실되자 보존하였고, 이후 다시 묘우(廟宇)를 만들어 위패를 봉안하였다. 그러나 위패를 봉안할 때, 유생이라고는 한 사람도 오지 않고 오직 정경운만이 참여할 정도로 쓸쓸한 정경이었다.¹³ 서원의 재건립이 불가피하자, 1600년(선조 33)부터 노사계(盧士戒)·정경운(鄭慶雲) 등이 주도하여 나촌(羅村)에 이건설 것을 계획하였다. 이때 새 서원 건립의 공정이 끝나자 노진의 아들인 노사회(盧士誨)를 서원 원장으로 추대하여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자 노력하였다.

13 『孤臺日錄』, 卷3, 己亥, 3월 22일

그러나 서원의 이건설 과정에서 함양의 향론은 크게 분열되었다. 그 직접적인 도화선은 배향자를 둘러싼 위치 문제였다. 주향자인 정여창을 가운데 두고, 배향(配享)으로 모신 옥계 노진과 개암 강익의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쟁단이 벌어진 것이다. 남계서원 설립을 주도한 강익 측에서는 양인의 위치상 동격을 의미하는 병향(並享)을 주장한 반면에, 노진의 입장에서 사실상 사제 간이기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¹⁴ 옥계 노진은 함양 출신으로 조정의 청요직을 두루 거친 거유(巨儒)의 한사람이었다. 그의 부친인 노우명(盧友鳴)은 정여창의 문인이었고, 그의 장인은 기묘 명현인 안처순(安處順, 1495~1534)이다. 그 자신도 당대의 거유인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1~1570)·남명 조식(南冥 曹植, 1501~1572)·하서 김인후(河西 金麟厚, 1510~1560)·일재 이항(一齋 李恒, 1499~1534)의 학자들과 깊은 교유관계를 형성하였던 인물이다. 이에 노진 측

14 김성우, 『조선 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외 비평사, 2001) 434쪽

은 위차 문제의 부당성을 문제시하여 향회를 열고 서원의 위차를 변경한 정경운 등을 영원히 손도배할 것과, 이들의 배후에 있는 내암 정인홍과 정구의 서원에 대한 영향력을 배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개암 강익도 임란 중 의병활동에 관여하였고, 그는 당대의 정객이었던 내암 정인홍(來庵 鄭仁弘, 1535~1623)과 깊은 사제관계를 맺고 있었다. 내암 정인홍은 노진 측의 주장에 격분하여 남명 조식을 모신 덕천서원을 방문해 경상 우도의 공론을 결집하였다. 그리하여 남계서원 집행부를 탄핵하는 통문을 전국에 유포시켰다. 이에 서원의 운영권은 다시 강익 측에 넘어가고, 분쟁에 패배한 노진 측은 그를 향사하는 신계서원(新溪書院)을 별도로 건립하여 옮겨가게 되었다.¹⁵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상 우도는 내암 정인홍을 중심으로 한 복인세력의 중심지로 부각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강우지역에서 복인세력의 중심지로 화한 남계서원은 서인 측과 참여한 대립양상을 보이면서 지방정치의 공간으로 변하였다. 내암 정인홍의 처남이기도 한 양홍주(梁弘誥)의 정인홍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에서 비롯된 분쟁은 복인과 서인 간의 치열한 다툼으로 번졌고, 남계서원은 향권 싸움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러나 향권을 둘러싼 다툼 속에서도 서원에서의 강학활동은 단속적이나마 이루어졌다. 서원에서 권학(勸學)의 규칙을 의논하고, 네 면(面)의 훈장(訓長)을 정한다든가,¹⁶ 고을 전체의 후생(後生)들에게 강론을 개설하거나 삭강(削講)을 시행하였다.¹⁷ 그러나 강론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西面)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오지 않아 강장이 통탄할 정도로 참여가 저조하였다.¹⁸ 전반적으로 남계서원의 강학활동은 부진하였다.

이후 임란을 전후한 시기에 남인들이 복인과 남인으로 분화되자 남계서원에도 그 운영의 주도권을 두고 상당한 알력 다툼이 나타났다. 특히 내암 정인홍이 퇴계 이황과 회재 이언적(晦齋 李彦迪, 1491~1553)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가하자 그 갈등의 기운이 서원 내부에까지 확산되었다. 더군다나 내암 정인홍의 제자들이 원장을 포함한 임원들로 임명되자 이들의 태도에 불만을 품은 다수의 사족들이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여 커다란 사회적 문제까지 확산되었다. 남계서원으로서의 일대 위기상황이었다.

한편 18세기 중엽 이후 서원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때부터 서원의 원장은 더 이상 함양 인근의 사족 출신이 많지 않고 중앙의 노론계 인물들이 장악하게 된다. 예로 당시 노론계의 핵심 인물이었던 도암 이재(陶庵 李穡, 1680~1746)는 1743년(영조 19)부터 임종 직전인 1746년(영조 22)까지 4년간 원장을 역임하였다. 이재 이후 서원의 원장은 모두 노론계 중앙 고위관료 출신이 역임하였다. 영의정 유척기(兪楨基)·영의정 김치인(金致仁)·찬선 김이안(金履安)·판서 이민보(李敏輔)·사부(師傅) 송환기(宋煥基)·영의정 남공철(南公轍)·영의정 조인영(趙寅永) 등 노론계의 쟁쟁한 실력자들이 경원장(京院長)을 역임하였다. 이 시기는 무신란(1728년)으로 인해 특히 영남사족들에 대한 중앙 정부의 대응이 매우 참여한 정치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이때 정여창의 후손인 하동정씨는 무신란을 주도한 정희량(鄭希亮)(동계 정운(桐溪 鄭蘊

15 위외책, 437쪽

16 신축(辛丑, 1601), 5월 7일 “往書院 議定勸學之規 分定四面訓長 日晡歸家”

17 고대일록 제3권, 辛丑(1601), 8월 10일

18 *고대일록 제3권, 辛丑, 6월 1일 “丁卯朔 往書院 講一鄉之後生 而西面之人 無一人來者 可痛 日暮仍宿院”





남계서원

1569~1641의 후손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당시 집권세력인 노론계와 정치적 연합을 이룰 수 있었다.

남계서원의 사적(史蹟)을 짧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건립 : 1552년(명종 7)에 강익 등이 주도
- 사액 : 1566년(명종 21)에 「남계(南溪)」로 사액되었다.
- 소실 :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으로 건물이 소실. 정경운(鄭慶雲) 등이 위판만은 이안하여 화를 면하게 하였고, 왜구가 물러간 후 묘우(廟宇)를 다시 만들어 위패를 봉안하였다.
- 이건 : 1600년(선조 33), 노사계(盧士啟), 정경운(鄭慶雲) 및 강위로(姜偉老) 등 10명이 나촌(羅村)에 이건설 것을 계획하였다. 1602년(선조 35)에 그 계획을 확정하고 그 다음 해인 1603년(선조 36)에 남명의 고제이며 의병장으로도 활동하였던 조종도(趙宗道)가 공답(公答) 18두락지를 주고 상환하여 원기(院基)를 옮겼다.
- 환건(還建) : 1605년(선조 38), 남계의 옛터에 서원을 다시 옮겨 건립하였다. 1612년~1682년의 71년간의 경임(經任)후, 서원을 다시 옮겨온 사적(史蹟)들이 인멸되었다.
- 배향(配享) : 1675년(숙종 1)에 사람들이 강익(姜翼)과 정온(鄭溫)의 배향을 요청, 1677년(숙종 3)에 정온만이 배향되었다. 1689년(숙종 15)에 강익이 다시 배향되었다. 별사(別廡)에는 유호인(劉好仁, 1445~1494)을 제향하였다.
- 묘장비(廟庭碑) 조성 : 1779년(정조 3)
- 풍영루(楓影樓) 조성 : 1841년(헌종 7)에 설립했으나, 1847년(헌종 13)에 불에 타고, 1849년(철종 1)에 다시 중건하였다.
- 별사(別廡) 훼손 : 1868년(고종 5) 대원군 서원철폐령이 내리자 남계서원에서는 별사만 훼손되었다.
- 장판각 중건 : 1929년
- 토지분배 : 1950년(경인)에 토지개혁으로 서원의 토지를 분배

별묘(別廡) 사적

- 별관건립 : 1634년(인조 12) 강익(姜翼)을 제향
- 병향(并享) : 1642년(인조 20) 유호인(劉好仁) 및 정온(鄭溫)을 병향
- 승배(陞配) : 1677년(숙종 3) 정온(鄭溫)을 배향으로 그 제향의 격을 높임. 1689년(숙종 15) 강익(姜翼)도 함께 승배(陞配) 결정
- 제향인물 추가 : 1820년(순조 20) 정홍서(鄭弘緒) 제향



又獻公蠹鄭汝昌先生追慕碑

문경공 일두정여창선생추모비(2009년 건립)

3) 남계서원의 내부 구조

남계서원은 공부하는 장수^{藏修}공간인 거경재^{居敬齋}와 집의재^{集義齋} 이 외에도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유식^{遊息}공간을 두어 원생들이 여유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였다. 서원을 방문하여 홍살문과 하마비를 지나면 서원의 정문 역할을 하는 풍영루^{風詠樓}가 있다. 준도문^{遵道門} 위에 1841년(헌종 7)에 건립한 풍영루^{風詠樓}는 장수와 유식의 개념이 함께 녹아 있는 서원 교육의 한 모습을 보여 준다.

증점의 기수^{奇守}가의 풍영^{風詠}과 안자의 누추한 거리에 살면서 어리석은 사람같이 보이는 것은 그 규모와 기상이 비록 같지 않은 점이 있으나, 배우는 자들이 하나라도 폐해서 강론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하다. 이 서원에는 거경재와 집의재가 있으니, 대체로 증자와 맹자의 뜻을 미루어 체용의 학문으로 일삼고자 한 것이다. 이는 이른바 안자가 배운 바를 배우는 것이다. 그런데 시위를 당기되 놓지 않는다면 문왕과 무왕도 다스릴 수 없을 것이니, 정신을 일으켜 펴고 성정을 쉬며 기르는 데에 어찌 한쪽 편의 일을 없앨 수 있겠는가?

19 奇正鎮, 『風詠樓重修記』, 『一叢集』續集 권3) 曾氏之沂上風詠 與顏子之巷居如愚 規模氣象 雖有不同 而學者不可廢一而不講也 明矣 是院之有居敬集義齋者 蓋將追曾 孟之志 以事體用之學 是所謂學顏子之所學 而張而不弛 文武不能 發舒精神 休養性情 又烏可無一段事乎

'풍영'은 바로 『논어^{論語}』에서 나오는 '기수에 가서 목욕을 하고 무우대에 올라가 바람을 쐬고 노래하며 돌아오겠습니다(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라는 구절에서 따온 교육 철학이다. '준도^{遵道}'는 『중용^{中庸}』에 있는 '군자가 도를 좇아 행하다가 중도에서 그만 두기도 하지만 나는 그만둘 수가 없다(君子遵道而行 半途而廢 吾弗能已矣)'라고 한 데서 그 뜻을 취하였다. 성인으로 향한 쉽 없는 공부의 여정을 독려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풍영루 중수기





동명루 洞諫樓



중도문 (中道門)







양정재(正正齋)(동재)



보인재 補仁齋 (서재)

이어 연못과 묘정비를 지나면 동재인 '양정재(養正齋)'와 서재인 '보인재(輔仁齋)'가 나타난다. 동·서재인 양정재와 보인재의 처마에는 '애련헌(愛蓮軒)'과 '영매헌(詠梅軒)'이라고 이름 붙인 누마루가 있고 현판도 걸려 있다. 이 누마루에서는 앞에 각각 조성해 둔 연못을 바라보게 해 두었다.

양정재는 『주역(周易)』의 『몽괘(蒙卦)』에서 보이는 '어릴 때부터 바름을 기르는 것이 성인의 공덕이다(蒙以養正 聖功也)'라는 구절에서 따온 것으로 관동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보인재는 『논어』의 유명한 구절인, '군자는 글로써 벗을 사귀고, 벗으로써 인을 돕는다(君子以文會友 以友輔仁)'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강당 좌우의 방은 각각 '거경재(居敬齋)'와 '집의재(集義齋)'로 명명하였다. '거경'은 정자(程子)가 말한 '거경궁리(居敬窮理)'를, '집의'는 맹자가 말한 '집의소생(集義所生)'에서 따온 것으로 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공부법을 제시하고 있다. 강당의 당호는 『중용(中庸)』에서 인용한 '명성당(明誠堂)'으로서 "성(誠)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성(誠)하게 된다(誠則明矣 明則誠矣)"라는 유학 정신의 핵심을 드러내고 있다.

서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당은 뒤쪽 언덕에 있다. 전형적인 전학후묘(前學後廟)의 형태로 공부하는 강당이 앞에 있고, 사우(사우)는 뒤 쪽에 모셔진 한국 서원의 특징을 오롯이 담고 있다. 남계서원의 건축은 기본적인 한국 서원의 건축양식을 원형 그대로 재현 해놓은 것으로 이름이 높다.



남계서원 요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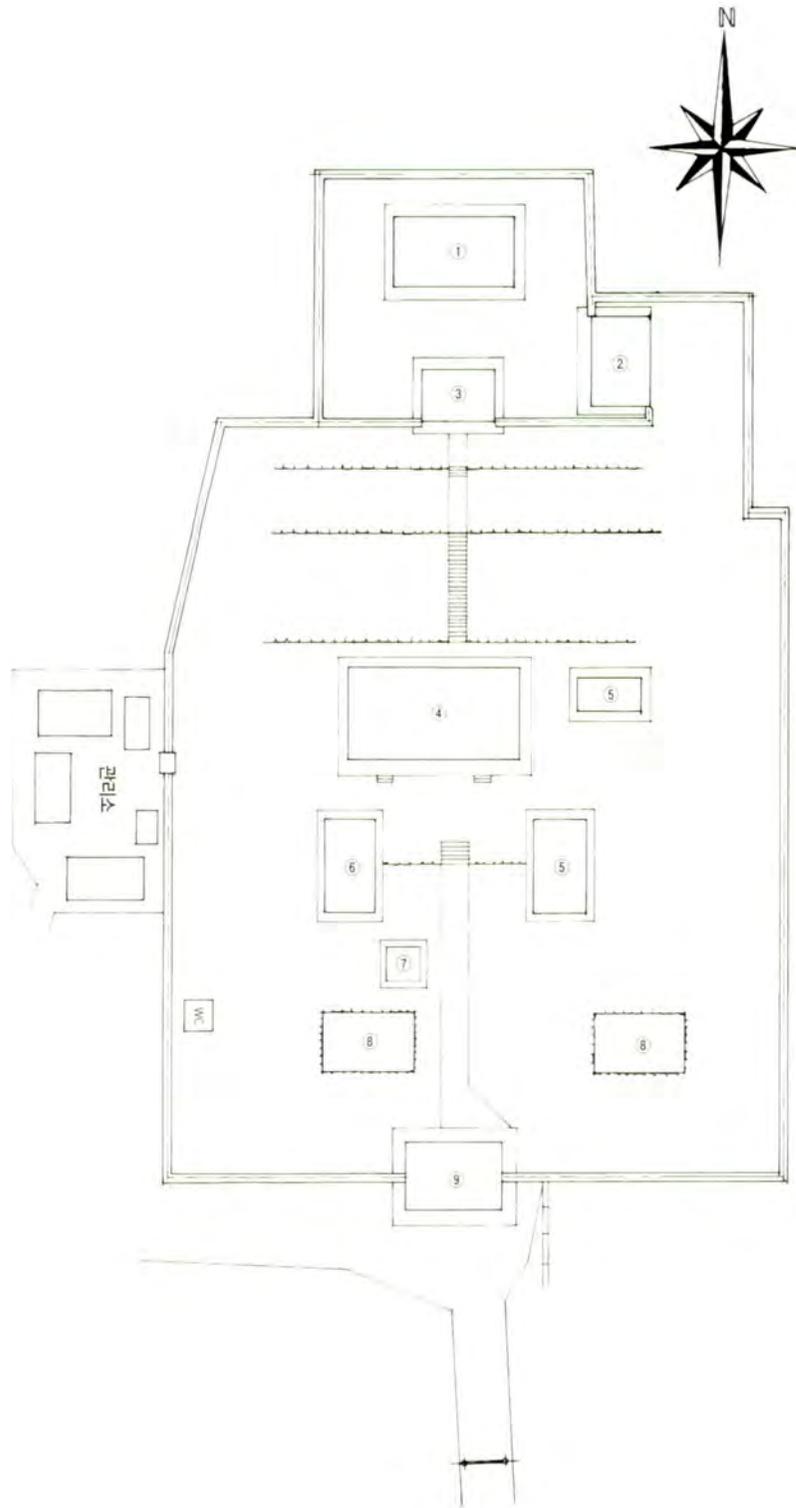
명성당 明誠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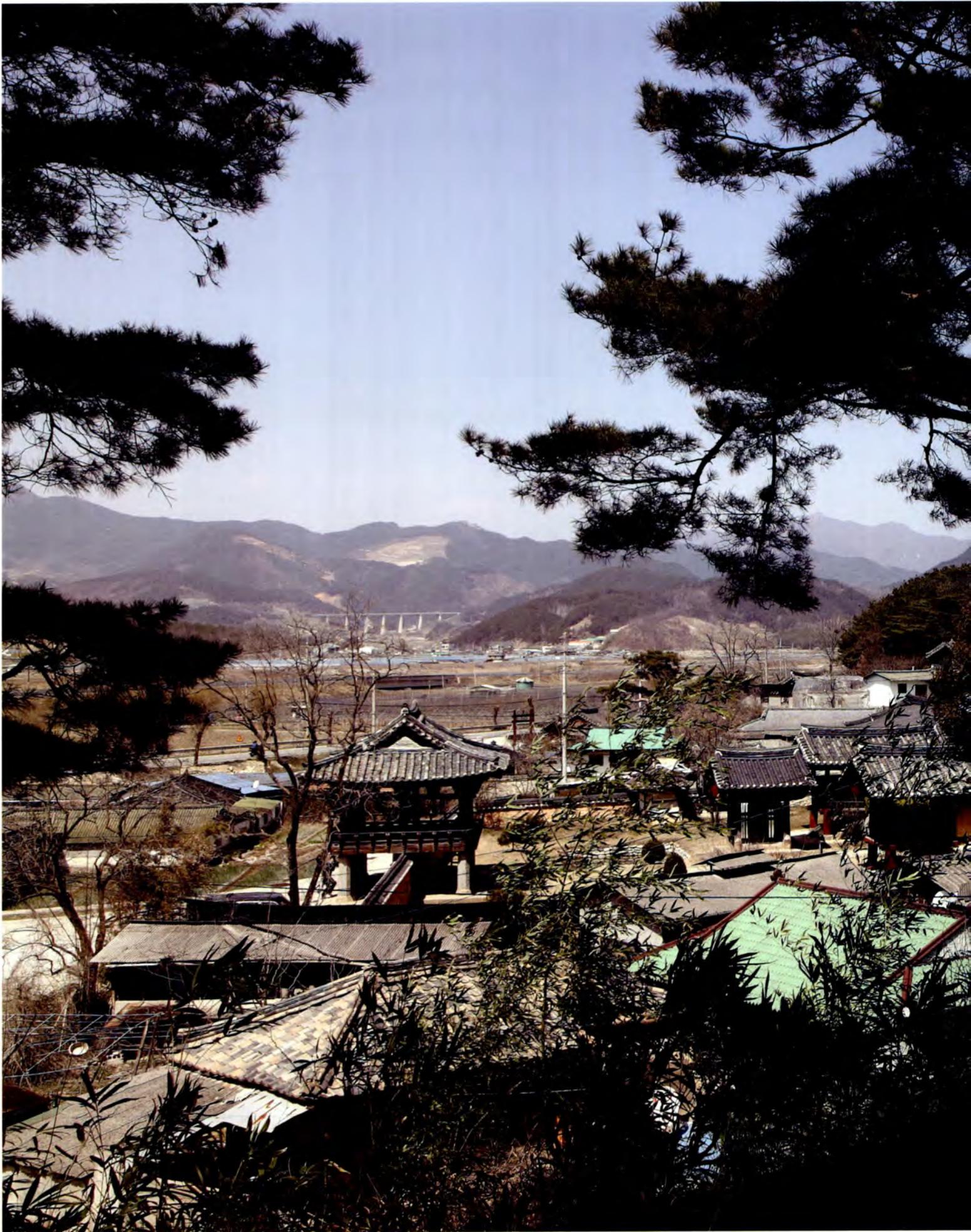
사당 0000



전사청



- ① 내삼문
- ② 전사청
- ③ 내삼문
- ④ 강당
- ⑤ 보인재
- ⑥ 양정재
- ⑦ 비각
- ⑧ 연못
- ⑨ 풍영루





4) 남계서원의 운영과 경제

(1) 산장^{山長}과 원임

한 서원의 성격은 그 서원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졌던 임원들에 의해 결정되는데, 남계서원도 예외가 아니다. 남계서원에는 이 서원을 운영하였던 역대 임원들의 명단이 상당수 남아 있어 그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남계서원에는 원장^{院長}·유사^{有司}·전곡유사^{典養有司} 등 서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인물들의 명단이 있다. 이 명단을 『경임안^{經任案}』, 『원임안^{院任案}』 또는 『원임록^{院任錄}』이라고 하며 초기 설립 과정에서부터 20세기 까지 남아 있다. 가장 오래된 경임안은 1552년(명종 7)부터 1687년(숙종 13)까지 원장을 포함한 원임들의 명단이 실려 있는 것이다. 가장 앞부분에는 1578년(선조 11) 노사예^{盧士豫}가 찬한 「경임안서^{經任案序}」가 실려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원임들의 재임기간, 교체시기 및 그 이유 그리고 해당 인물의 업적 등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어, 설립 초기의 서원의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남계서원은 그 건립초기에는 원장을 산장^{山長}으로 칭하기도 했다. 건립 직후부터 원장·유사·전곡유사였던 조직은 1678년(숙종 4) 전곡유사 대신 도유사^{都宥司}제를 도입해 전곡유사가 맡았던 일을 처리하였다. 이후 50여년 간은 원장·도유사·유사 3인 체제로 운영되다가 1738년(영조 14)부터 재유사^{在宥司}가 도입·운영되었다. 특히 1743년(영조 19) 도암 이재로부터 서울 노론의 핵심인물이 경원장^{敬院長}을 맡아 운영하는 독특한 시스템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후 김이안·남공철·조인영 등의 인물이 경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남계서원은 경상우도의 대표적인 노론계열 서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한편 1820년(순조 20)부터는 유사가 경유사^{經宥司}와 향유사^{香宥司}로 나뉘어졌고, 1847년(헌종 13)에는 별유사^{別宥司}가 새로 생겨났다. 별유사는 서원에 특정 일이 있을 때 단기간 두었던 임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예컨대 양안작성과 관련하여 특별히 임명된 사유사^{在宥司}가 그에 이다. 1885년(고종 22)에는 장의^{掌議}가 도입되어 원장·유사·장의 체제로 운영되었고, 1923년부터는 직월^{直月}이 새로 임원에 추가되었다. 직월은 서원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잡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계서원에는 서원에 입록^{入錄}한 인물들의 명단도 남아있다. 원생들의 명단이 실린 책은 『원생록^{院生錄}』, 『입원록^{入院錄}』, 『서원유생안^{書院儒生案}』 등의 이름으로 전해진다. 초기의 『원록^{院錄}』을 보면 당대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다수 눈에 띈다. 예로 한강 정구^{鄭逵}를 포함하여 하응도^{河應圖}·박이장^{朴而章}·하훈^{河訓}·문경호^{文景虎}·정경운^{鄭慶雲} 등 남명 조식의 핵심 문도들이 망라되어 있어 초기 서원의 위세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남아 있는 기록은 1552년(명종 7)부터 1705년(숙종 31)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생들과 임원들의 명단을 실고 있어 그 당시 서원을 출입하던 주요 문중과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남계서원 원규 院規 현판

(2) 남계서원의 원규 院規

남계서원에서도 서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금 남아 있는 고문서에는 남계서원에서 만든 서원의 규칙, 즉 원규 院規가 기록되어 있다. 다른 서원에 비해 비교적 그 내용이 간략한 상태이지만, 서원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자 한 고민의 흔적이 보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사가 인수인계시에는 반드시 재산과 물품을 대조 후에 인계한다.
- 원토의 세금은 서원에서 직접 담당한다. 도지세는 액수를 정하도록 하고, 만약 재해 災가 있으면 농작물의 잘되고 못된 정도를 추수하기 전에 직접 살펴보도록 한다.
- 향례에 쓰일 경상비는 도지세에서 춘추로 각 50석을 정해진 예에 의하여 조달하여 쓰도록 한다.
- 소를 잡는 포우 捕鳥 가격은 150량을 정가로 한다.
- 서원의 채용은 증거가 없으면 쓰지 못하도록 한다 院中財用無証不得施行事 。
- 유사의 공적인 접대비용은 15량 이내에서 정한다.
- 서원의 서책은 서원에 와서 독서하는 자가 아니면 일체 빌려 주지 않는다.
- 참알 參料하는 사람에게 대한 잡내는 만약 비용이 과도하게 되면 적절하게 감하도록 한다 眞接待若有過費量宜削事 。
- 서책은 매년 여름을 경과한 후 포쇄하도록 한다.

앞에서 보듯, 원규의 대부분은 서원 운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제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다. 향사사에 필요한 경상비와 서원 방문객에 대한 접대비 등을 최소화하여 서원 운영을 재정 형편에 맞게 하고자 하였다. 특히 “서원의 재용은 증거가 없으면 쓰지 못하도록 한다”는 조항은 서원의 경제력이 유사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로 보여진다. 원규에서 다음으로 강조한 것이 보관된 서책의 관리와 보존이었다.

(3) 남계서원의 경제

남계서원의 경제 규모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는 그다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약간의 『양안』과 『전답안』 등이 있어 대체적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서원의 전체적인 재산은 도산서원이나 옥산서원과 같은 큰 규모는 아니었다. 1733년(영조 9)에 작성되고, 1737년(영조 13)에 완의가 추가된 서원의 양안에 의하면 당시 서원전답은 영구히 세금을 내지 않는 토지(永無稅地)가 1결 2부, 면세지(免稅地)가 3결이 있었다. 면세지 중에서 밭이 95부 3속, 논이 2결 4부 7속이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완의가 보인다.

대저 학궁의 전답은 원래 서로 바꾸거나 누락하여 잃어버리거나 방패하는 폐단이 없어야 되는데도 이전부터 지금까지 혹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 추항 때에는 선비들이 의논을 제기하여, 검사하는 유사(유사)를 별도로 정하여 갑술양안 및 경자양안을 일일이 조사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상환된, 누락된 곳을 등사하여 서원 양안의 말단에 따로 부쳤다. 원중에서 금년부터 시작하여 본답의 소출은 반분 하며, 하동(하동)에 있는 논 상환한 곳도 또한 물려서 아울러 부기하니 일후 원임을 교대한 임원 일지라도 이에 따라 준행할 일이다.

앞의 기록을 보면 서원의 전답들은 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남계서원에서는 서원 전답을 임원들이 마음대로 바뀌치기 하거나, 누락시키고 팔아 버리는 등의 사태를 방지하고자 완의를 작성해 운영지침으로 삼았다. 한편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추수기』에는 서원의 토지 소재지·면적·소작인·소작료 등을 차례로 기재하고 있어 서원의 경제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추수기』에 따르면, 토지는 주로 함양 인근에 분포되어 있었다. 소작인은 남계서원 본손인 하동정씨를 비롯해 남원양씨·진주강씨 등 서원 창건 및 운영에 참여했던 성씨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1910년대 남계서원은 논 250여 두락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여기서 120여 석의 소작료 수입을 올렸다. 이어진 1911년의 서원의 토지 면적은 257두락 8승이었다. 전체 소작료 수입은 1911년의 경우 121석 4두에 달하였으며, 이 가운데 수수료·감조(감조)·자연 감축분(자연 감축분)을 제한 실제 소작료 수입은 111석이였다. 이 수입은 다시 금전으로 환산하여 총 1,200량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1924년의 추수기를 보면, 총 도지액(總地額)은 92석 10두로 그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서원 경제력의 큰 몫을 차지하는 서원 노비의 실태에 대해서는 지금 남아 있는 자료가 별로 없으며, 다만 짧은 원문(源文)만이 남아 있어 그 편린만을 엿 볼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계서원은 가장 중요한 서원인데 근래 서원의 풍속이 점차 해이하게 되어 걱정이 많다. 특히 후학들이 가장 통분스럽고 개탄하는 것은 서원 수호에 관한 절목이다. 원저에 있는 수개 촌은 원역(院域)이나 포역(圃域) 등이 한 사람에게 중복되게 부과되어 형세가 차마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원에 이외의 10호(戶)에 대해서는 군포를 없애도록 하고, 본원을 수호하는 일을 전임하도록 한다. 만약 이 10호에 대하여 침역 하는 폐가 있으면 해당 장의에 대하여는 엄히 문책하도록 하고, 변포(辨布)를 하면 즉각 해당 장의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

상세히 살펴보면 서원 소속 노비 외에 서원 주위(院邸)에 있는 10호의 보인(保人)들에 대한 군포(軍布)를 서원에서 독점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한 관의 인증 문건이다. 즉 관에서 현역 복무자인 정군(正軍)의 경비 충당을 위하여 현역에서 제외된 자인 보인(保人)에게 부담시키던 군포의 징수권을 서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그 만큼 관에서도 서원 경제에 상당한 배려와 조력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남계서원은 지방 수령들의 절대적인 후원 하에 이루어졌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의 도움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 남계서원에 수백 년 간 작성되어 온 기부금 장부, 즉 『부보록(附寶錄)』은 수령들의 기부재산을 기록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을 여실하게 알려 준다. 남계서원은 그 설립 때부터 주위 사족 및 수령들의 경제적 도움이 컸다. 그 지원의 규모와 기부자의 명단을 기록한 『부보록(附寶錄)』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부보(附寶)'란 서원 운영을 위해 서책과 재곡을 모은다는 뜻이다. 서원의 이러한 전통은 장기간 이어 갔고, 『부보록』에는 「가보(加寶)」란에 그 명단 및 기부금 액수를 기록하였다. 부보한 내역을 살펴보면 벼·콩·서적·노비·어물·소금·백지 등 다양하였다. 『부보록』의 용도와 그 모금 경위에 대해서는 강익의 연보에 비교적 자세히 밝혀져 있다.

서원에 학도들이 모여 강업(講業)하고자 했으나 서적이 없고 재곡이 많지 않았다. 선생(先生)이 인재를 기를 수 없음을 걱정하여 사암(沙庵) 노관(魯觀)을 서책을 마련하는 책임을 맡게 하고, 죽암(竹庵) 양홍택(梁弘澤)으로 하여금 재보(財寶)를 모으는 책임을 맡겼다. 시종 협력하여 마침내 이 일을 성취하니 서적이 모두 100여 질이 되었고, 재곡이 선비를 공양하기에 남음이 있었다. 선생이 이에 목계(木溪) 노진(盧震)·구출(具出) 양희(梁熙) 두 선생과 상의하여 서원의 재곡을 경내의 서당 및 동내에 나누어 주어 이것으로서 그들의 훈인과 상례, 그리고 춘추 강신례(講新禮)를 행하는데 보태게 했다. 마침내 이 것이 일항의 정식(正式)이 되었다.

지금 남아 있는 『부보록』은 1555년(명종 10)부터 1559년(명종 14)까지의 것으로 초창기 서원의 기부금 납부자 및 그 액수를 적은 문서가 눈에 띈다. 이 자료를 통해 서원 창건에 필요한 경제적 규모, 수령의 지원 상황 등을 엿볼 수 있다. 또 다른 『부보록』은 1552년(명종 7)부터 일제시기인 1913년까지의 기부 상황이 실려 있다. 앞 부분에는 서책의 기증 내용을 기록하고, 뒷 부분에는 「비망록」이라 하여 미곡 등 기타 물품의 납부실태를 기록하였다.

5) 남계서원의 강학과 서책 관리

서원이 건립된 초기에 강의 등은 강학활동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우선 춘추향사 및 삭망분향례 후 통독회(講會)를 개최하는 것을 항식으로 삼고자 하였다. 강의의 문집에는 '가정 41년 임술(1562) 제생을 이끌고 춘추로 서원향사를 지낸 뒤 경서를 가지고 논변하기를 수 일 동안 하였다. 선생은 유생들의 통독(講讀)하는 규칙을 정하여 매 달 초에 제생들을 모아 강독하니 선비들 가운데 성취한 사람이 많았다²¹⁾라는 대목이 나타난다. 또한 당대의 명유들을 초치하여 비정기적인 강회(講會)도 열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남명 소식을 들 수 있다. 「남명선생편년」에 의하면, '선생께서 하항(河抗)·하응도(河應圖)·유종지(柳宗智)·진극경(陳克敬)을 데리고 남계에 갔는데, 강의(姜翼)·정유명(鄭維明)·정복현(鄭復顯)·임희무(林希茂)와 많은 선비가 모여 강학하였다²²⁾라는 기록이 보인다. 참가한 인물들의 면면으로 보면, 16세기 후반 경상 우도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들이 망라되고 있어 당시 남계서원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남명의 고제인 덕계 오건의 일기에도 강학관련 기록이 나타난다.

21) 尙庵集, 권下 부록, 연보

22) 이건정, 『南冥先生編年』, 『남명선생문집』

10월 25일, 노진(盧震)의 아들 노사회(盧士奇)가 편지를 가지고 와서 남계서원에서의 강학을 청하였다. (중략)
10일에 남계서원으로 향했는데 박희무·강익·오준 등도 도착하였다. 11일부터 17일까지 강공하·강문필·강익·김우광·김우웅·김우용·노진·도희령·박사화·양열·양홍택·양흔·오언숙·임언실·정복현·정수복·정중언 형제·정지·조식(曹錫) 등이 참여하였다. 25일에 『주자연보』 중권과 『연평문답』 1권을 중심으로 강론하였다.²³⁾

23) 吳健, 『歷年日記』, 1565년 10월 25일~11월 25일

앞의 기록으로 보면, 강회에는 약 20~30명에 달하는 남명학파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강회의 교재가 『주자연보』 중권과 『연평문답』이었던 것으로 보아 강회의 수준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며, 성리학의 핵심 개념에 대한 논변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참석한 인물들이 대체로 남명학파의 맹장들이었음을 감안할 때 남명학이 지향하는 근본 정신에 대한 논의도 당연히 토론의 주제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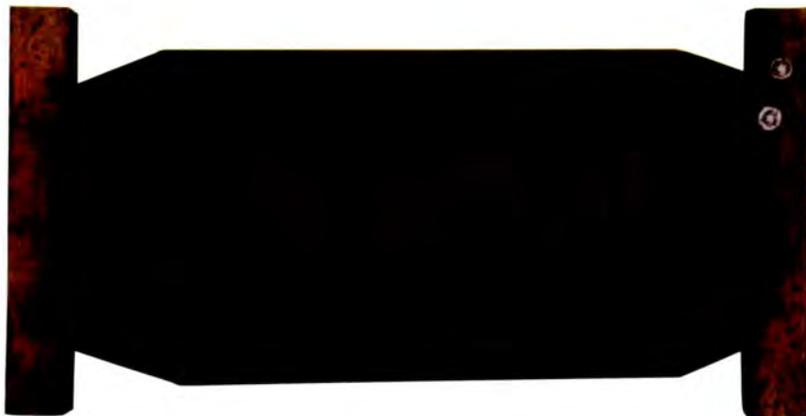
한편 서원의 원규에서 보이듯이 남계서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한 것 중의 하나가 서

책이었다. 서원 측은 임란으로 완전히 망실된 서책들을 복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금 남아있는 『부보록(負寶錄)』에는 수집 서책의 출처와 서명이 적혀 있어 그 전체적인 윤곽을 확인할 수 있다. 서원에서는 1686년(숙종 12)에 강익의 문집인 『개암집』을 개간하고 그 목판을 보관하는 장판각을 구비하였던 것으로 보아, 비록 한시적인 것으로 보이나 출판에도 관여하였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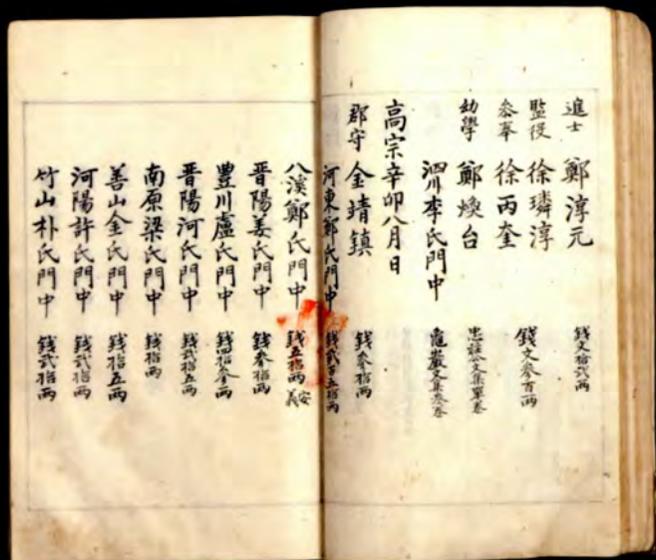
24 『介庵集』卷下終, 刊記, “崇禎甲申後丙寅仲春日 咸陽藍溪書院開刊”

참고로 현존하는 고문서 자료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서원의 조직과 운영 관계 자료는 1935년에 2권(卷 1책冊(31장張))으로 간행된 『남계서원지(藍溪書院誌)』를 비롯하여 『경임안(經任案)』, 『원생록(院生錄)』, 『부보록(負寶錄)』, 『존위록(尊衛錄)』 등이 있다. 『남계서원지(藍溪書院誌)』의 범례에 의하면 원지는 1875년(고종 12)에 처음 만들어 졌으며, 남계서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로 편찬된 것이다. 『경임안류(經任案類)』는 『원임안(院任案)』 또는 『원임록(院任錄)』이라고도 한다. 원장(院長)·유사(有司)·전곡유사(典穀有司) 등 서원 임원을 지낸 인물들의 명단이다. 원록류(院錄類)는 원생록(院生錄)·입원록(入院錄)·서원유생안(書院儒生案)이라고도 하며 서원에 입록(入錄)된 인물들의 명단이다. 다음으로 부보록류(負寶錄類)는 서원 운영을 위해 서책과 재물을 모은다는 뜻으로 『부보록』은 일종의 기부금 장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존위록류(尊衛錄類)는 남계서원의 역대 사적 중 『원생안(원록)』, 『경임안』, 『부보록』 3편을 각각 정리하여 묶은 책이다. 『존위록(尊衛錄)』은 1961년(신축) 겨울에 원의(院議)로써 간행에 착수하여 1962년(임인) 가을에 완성, 배포하였다. 『참제록(參祭錄)』은 서원의 춘추제향(春秋祭享) 때 헌관(獻官)·대축(大祝)·집례(執禮)·판진(判陳)·집사(執事)·학생(學生) 등 직임(職任)을 맡은 사람을 기록한 명단이다.

그리고 서원의 운영과 경제력을 알려 주는 각종 치부기록류(置簿記錄類)가 남아 있다. 『양안(量案)』·『전답안(田畵案)』, 그리고 191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는 70여 년간의 『추수기(秋收記)』가 기록되어 있는 추수기류(秋收記類)가 고문서 형태로 남아 있다. 이러한 고문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1995년에 『고문서집성』 24권으로 간행한바 있다.



- 1 3
2 4 5
1. 장판각 藏板閣
 2. 남계서원 소장 목판
 3. 남계서원 문서
 4. 부보록 哀實錄
 5. 경임안 經任案



6) 남계서원의 제향인물

(1) 일두 정여창 鄭汝昌

정여창(鄭汝昌, 1450~1504년)은 하동(河東)정씨 명문가에서 태어났다. 집안은 대대로 벼슬을 하였으며 아버지는 함길도병마우후(尙書兵馬僉議) 증한성부좌윤(贈韓城府佐尹) 육을(六乙)이다. 어머니는 목사 최효손(崔孝孫)의 딸이다. 그의 이름은 명나라에서 온 사신들이 짓고 그에 관한 명설(名說)을 남겨 놓았다. 정여창의 호인 '일두' 蠹는 정이천(程頤)의 '천지간의 한 좀벌레(天地間一蠹)'라는 말에서 따온 것으로 책만 보는 서생이라는 겸양의 마음이 담겨 있다.

정여창은 당대의 유명한 학자인 율정 이관(栗亭 李寬義)의 문하에서 배웠다. 순조롭던 그의 삶은 18세가 되던 해에, 아버지 육을이 이시애의 난 당시 병마우후(兵馬僉議)로 향전하던 중 전사하면서 첫 풍랑을 맞았다. 이에 세조의 특명으로 아버지를 대신하여 의주판관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였다. 그는 23세 때, 평생의 지기인 한훤당 김굉필(龜峯堂 金宏弼)과 함께 점필재 김종직(佔畢齋 金宗直)의 문하가 되었다. 이 시기 김종직은 함양군수로 재직하고 있었기에 그 인근에 살던 양인은 자연스럽게 그 문하에 출입할 수 있었다. 이때 김일손(金弼孫)·남효온(南孝溫)·유호인(兪好仁) 등 당대의 뛰어난 재사들과 함께 학문을 토론하면서 견식을 넓힐 수가 있었다. 그는 특히 수리에 능하여, '한훤당 김굉필은 이理에 밝고, 일두 정여창은 수數에 밝다'는 평을 들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당시 정여창은 그 문인들 중에서도 도학(道學)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그는 『논어』에 밝고 성리학의 근원을 탐구하여 체용(體用)의 학을 깊이 연구하였다는 평가를 얻게 되었다. 도학을 중시하는 그의 태도는 뒷날 퇴계를 비롯한 사림파들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의 친구이기도 한 유호인에 따르면 정여창은 젊어서부터 천성이 얼매이기를 좋아하지 않고 천석연(泉石煙霞)의 자연을 사랑하였다고 한다. 비록 시를 즐기지는 않았으나, 자연을 노래하는 그의 시는 속기를 벗어 버린 시원함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예로 다음과 같은 시는 후대의 인물들로부터 절창으로 평가 받는다.²⁵

바람 부들 등등 떠서 가볍게 하늘거리는데 風蒲獵獵弄輕柔
 사월의 화개에는 보리가 이미 익었도다 四月花開麥已秋
 두류산의 만학천봉 남김없이 다 둘러보고 看盡頭流千萬壘
 외로운 배로 다시 큰 강을 따라 내려오노라 孤舟又下大強流

정여창은 젊은 시절부터 이미 학문으로 이름이 높았는데, 1480년(성종 11)에 성종이 성균관에 유서를 내려 덕이 높고 경학에 밝은 사람을 구하자 천거되었다. 서거정(徐居正)이 그를 경



정여창 위패

25 최영성, 「일두 정여창의 생애와 학문」, 『일두정여창의 생애와 사상』, (일두사 상연구원, 2004) 37쪽

연에서 시강하게 하려 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1483년(성종 14)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8월에는 성균관에서 그를 이학(理學)으로 추천하였다. 그러나 모친상을 당해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한 후, 지리산을 찾아가 악양동(岳陽洞) 부근 섬진(巖津)나루에 집을 짓고 전원(田園)에 은거하였다. 그 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예문관검열을 거쳐 시강원설서가 되었다. 이때 그는 동궁인 연산군을 보호하고 지도하려하였으나 동궁이 좋아하지 않았다.

정여창은 1495년(연산군 1)에 안음현감(安陰縣監)에 임명되어 백성들의 질고(執瘼)가 부림(賦敎)에 있음을 알고 편익수십조(便益數十條)를 지어 시행하였다. 그는 목민관으로서 뛰어난 지적을 보여 백성들로부터 깊은 신임을 얻었는데, 민사(民事)를 돌보는 여가로 고을의 총명한 자제를 뽑아 친히 교육하였고 춘추로 양로례(養老禮)를 행하였다.

그러나 1498년(연산군 4) 김종직의 사초 문제로 무오사화가 발생하자 그도 봉당을 만들었다는 죄목으로 종성(鍾城)에 유배되었다. 그러나 유배중에도 좌절하지 않고 학동들에게 성리학을 가르치고, 변방의 사람들을 교화하면서 학문과 문물을 전파하였으며 유배지에서도 『주역』과 『역학계몽』 등을 가까이 두고 탐독하였다고 한다. 그는 『용학주소(龍學註疏)』, 『주객문답설』 등의 저서를 남겼으나 무오사화 때 소각되고, 지금은 한강 정구가 엮은 『문헌공실기(文獻公實記)』가 전할 뿐이다. 그는 1504년(연산군 10) 종성에서 향년 54세의 나이로 별세하였다. 문인들과 유림 동료 친지들이 두 달에 걸쳐 그의 시신을 고향 함양군까지 옮겨와 남계서원 뒤 승안산 기슭(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승안동)에 안장하였다. 그 후 갑자사화로 지기인 한훤당 김굉필이 사사될 때 부관참시 되었다가, 1506년(연산군 11) 중종반정으로 복관되었다. 중종 때 정몽주(鄭夢周)·김굉필(金宏弼)과 같이 동국도학(東國道學)의 종(宗)으로 숭상되면서 의정부 우의정에 추증되고 문묘에 종사하였다.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1610년(광해군 2) 문묘에 승무(陞廟)되었다. 한강 정구는 신도비명에서 그의 학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선생의 학문은 침주(沈舟)로써 표준을 삼았다. 독서는 궁리로써 우선을 삼고 처심(處心)은 속박받지 않고 자유스러운 것을 주로 삼았으며, 일상의 공부(工夫)는 성(性)과 경(敬)을 벗어나지 않았다.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경영하는 율령(律令)과 격례(格例)에 있어서는 그 극점까지 궁구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바깥 고을을 다스림에 이미 그 단서를 보였다.¹⁹⁾

19) 『동계집』 권4 「文獻公一蠹鄭先生神道碑銘并序」

그의 사상은 추강 남효온 등으로부터 불교적인 요소가 있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유학 이외의 학문에도 사상적인 폭이 넓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신도비명에서는 정여창이 단순한 학문적인 이론가가 아니라 국가경영과 평천하를 위한 율령과 법률제도 등에도 해박한 식견을 지녔던 인물이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미암 유희춘은 정여창의 학문을 총평하며 '독실(篤實)로써 근본을 삼고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碩學)을 주로 삼았다고 하였다.

(2) 동계 정온 桐溪 鄭溫

정온 鄭溫, 1569~1641은 안의 安義: 거창의 옛 명칭 · 함양지역에서 배출한 가장 걸출한 선비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병자호란 시 주화파에 분연히 맞서 스스로 할복의 길을 택해 이 지역 선비의 매서운 절의를 보여준 인물이다. 동계는 안의에 세거 世居하고 있던 초계정씨 草樓鄭氏 출신이다. 이들 가문은 이미 여말선초 이래로 정습인 鄭習仁 · 정준 鄭俊 등의 인물을 배출하면서 이 지역의 대표적인 명족으로 성장하였다. 안의지역에 사족 세력들이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15세기 후반 김종유 金宗裕 · 김종직 金宗直 등 선산김씨 가문 출신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이다. 그는 아버지 정유명 鄭惟明 1539~1596과 어머니 진주강씨 晉州姜氏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남계서원을 세운 강익이 바로 그의 외삼촌이 된다. 정유명은 1573년(선조 6)에 진사에 합격했고, 일찍이 갈천 葛川 임훈 林薰과 중유하였다.

이광정 李光庭, 1674~1756이 편찬한 『동계선생년보 桐溪先生年譜』에 따르면, 그는 15세 때에 처음으로 갈천 임훈을 찾아 가서 사제관계를 맺고 학업에 정진하기 시작하였다. 21세 때에는 예안의 도산서원 상덕사를 찾아 배알하고 월천 조목 月川 趙穆, 1524~1605을 찾아가 퇴계 학문에 대한 흥미의 마음을 표하였다. 그는 30대 초반까지 『심경』, 『근사록』, 『성리대전』 등을 탐독하면서 성리학 공부에 매진하였다. 동시에 가야산으로 내암 정인홍 來庵 鄭仁弘을 찾아가 예방하고, 입경하여 오리 이원익 梧里 李元翼, 1547~1634을 찾아가 제자의 예를 표하는 등 학문적 온축을 다지는 기간을 가졌다.

30대 후반에 이르자 정온은 차츰 사림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36세 때에는 도내 율림과 오현 五賢을 문묘에 종사할 것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리고, 40세 때에는 정인홍에게 편지를 보내 임해군 臨海君의 일을 논하였다. 그는 비교적 늦은 나이인 42세에 별시 을과에 급제하여 성균관학유 學諭에 보임되면서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 후 사간원 정언 등의 요직을 거쳤으나, 영창대군 永昌大君의 옥獄이 일어나자 정인홍과 사실상 결별하였다. 그는 1614년(광해군 6) 갑인봉사 甲寅封事를 통해 정항 鄭恒을 참수하고 영창대군 위호 位號를 복구 할 것을 주장하다가 광해군의 특명으로 제주도 대정에 위리안치 되었다. 그의 강직한 성품이 드러난 사건이었다.

그 후 인조반정으로 유배에서 풀려나 이조참의 · 대사간 · 경상도관찰사 · 대사헌에 등에 제수되어 중앙 정계의 중심 인물로 부상하였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그는 남한산성까지 왕을 호종하였으나 최명길 崔鳴吉 등의 주화론에 극력 반대하면서 왕의 항복에 자결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향리로 돌아와, 덕유산 기슭에 은거하였다. 그는 1639년(인조 17, 71세) 모리에서 일두 정여창 신도비 등의 글을 지으면서 이 지역 문풍의 확산을 꾀하였으나, 1641년(인조 19, 73세)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1642년(인조 20)에 용문서원 龍門書院에 추향되고, 남계서원 별사 別祠에 배향되었다가, 1677년(숙종 3)에 남계서원에 그 격을 높여 배향으로 정착되었다.



정온 위패

(3) 개암 강익介庵 姜翼



강익 위패

강익姜翼. 1523~1567은 본관이 진주晉州이고, 함양 효우촌에서 아버지 승사랑承仕郎 근우謙友와 어머니 남원양씨南原梁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린 시기에 성격이 호탕하고 얽매임이 없어서 사냥꾼과 각저角紙꾼들을 좇아 유희遊樂에 탐닉하였다고 한다. 부친이 이러한 습속을 통렬히 경계시키자 당곡 정희보唐谷 鄭希輔. 1488~1547에게 나아가 학문을 익히기 시작하였다.

그는 일두 정여창을 존경하고 사숙하였으며, 특히 장성하여서는 남명 조식南冥 曹植의 문하에 출입하면서 옥계 노진玉溪 盧植·동강 김우옹東岡 金宇顛과 더불어 학문을 연마하였다. 남명은 그에 대해, “나는 일찍이 남에게 속임을 당했었다. 그러나 지금 분명히 의심하지 않을 사람은 오직 자네뿐이다”라고 그 사람됨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찾아 가는 ‘위기爲己’의 학문을 하고자 하였다. 옥계 노진은 뇌사詠詞에서, ‘오직 공은 숨어살면서 평소의 뜻 지키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옛 사람이 바라던 것이었네. 건원建院의 바로잡는 약속 이행하기에 힘썼고 경전의 심오한 내용 관찰하려 생각했네. 향리鄕里에서 구차히 생활했건만 그의 수신修身은 더욱 확고하였으며, 외모는 온화하여도 실재는 경계耿介하여 외부에서 그의 지조 꺾을 수 없었지’라고 그의 덕을 칭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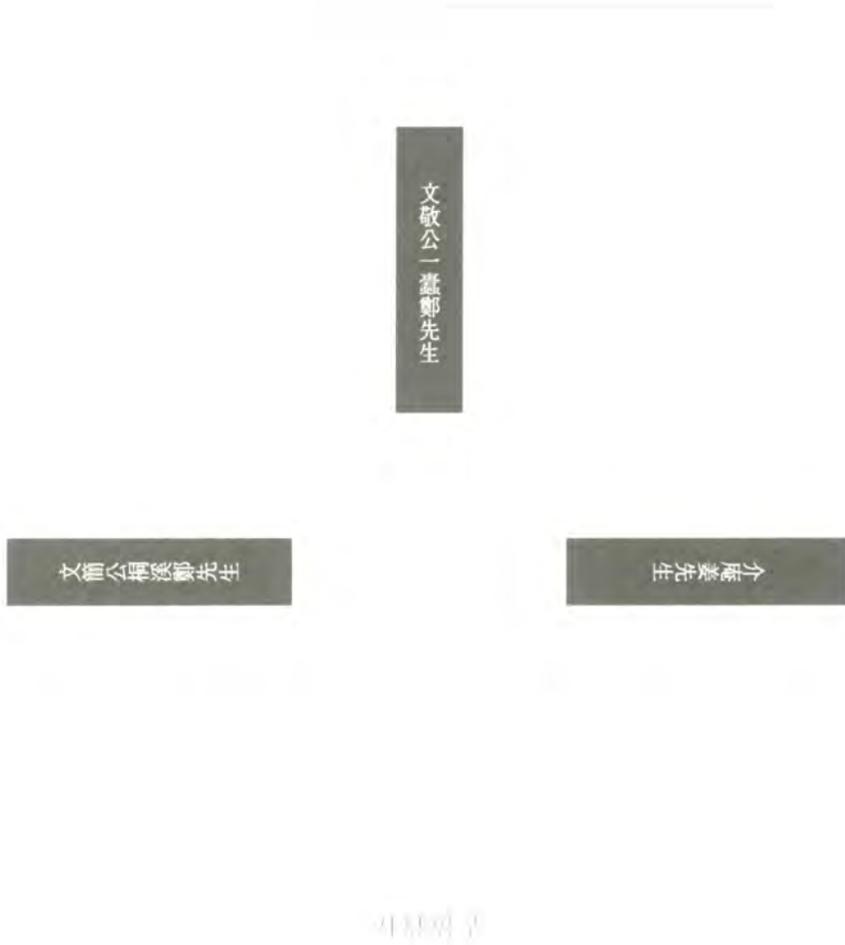
강익은 사람들의 깊은 신망에 힘입어 주변의 우려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남계서원의 건립을 성공적으로 주도할 수 있었고, 남계서원을 건립하면서 정여창을 이렇게 추모하였다.

| | |
|------------------------|---------|
| 우리 도가 이미 꺼져감이 안타까운데 | 爲憐吾道已寒灰 |
| 선생 귀암 가신지 몇 해 이던가 | 月冷鍾城歲幾回 |
| 능률한 유풍은 공경을 일으킬 만 하니 | 凜凜遺風能起敬 |
| 지금의 거친 사람들 마음질 할 수 있으리 | 庶今狂簡幸知裁 |

강익은 남계서원이 일두의 정신을 계승하여 선비들을 양성하는 새로운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을 간명하게 밝히고 있다. 1564년(명종 9) 김우홍金宇弘이 함양군수로 부임하자 힘을 합하여 동서재사東西齋舍를 세우고, 작은 연당을 판 후 못가에 매죽梅竹을 차례대로 심어 서원 영건의 틀을 갖추었다. 그는 서원이 건립된 후, 통독通讀의 규정을 정하여 매월 초하루 서원에 제생들을 모아 경전을 가지고 논변하면서 선비들의 학업의욕을 고취하였다. 또한 방백에게 청하여 네 읍의 식염食鹽, 두 군의 어해魚醢, 세 강의 어장漁基를 서원에 영속시켜 학생들의 장학에 만전을 다하였다. 더하여 노관에게는 장서의 구매와 비치를 책임지게하고, 양홍택에게는 재정문제를 책임지워 서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서원의 남는 재물은 고을 안의 마을과 서당에 나누어 각기 혼례와 상례를 돕도록 하고, 봄·가을로 강신례講信禮를 행하여 한 고을의 일정한 법식이 되도록 하였다. 그는 1567년(명종 22), 덕

계 오건(吳健)의 천거로 소격서참봉(昭格署參奉)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병이 갑자기 심해져 끝내 사은숙배(謝恩숙배)를 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사후 서원 영건에 대한 그의 공을 기려, 1689년(숙종 15) 남계서원에 배향되었다.

남계서원위차도(濫溪書院位次圖)





사당 내부 전경

静
肅

2. 남계서원의 향사

남계서원의 향사는 일두 정여창의 유덕을 기리고 추모하는 목적에서 매년 음력 2월과 8월 중정일^{甲子}에 봉행하고, 아울러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에 분향례를 행한다. 남계서원은 일두 정여창을 주향으로 모시고 동계 정온과 개암 강익을 동·서벽에 배향하고 있다.

1) 분향^{焚香}

서원에서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에 분향례를 행한다. 남계서원에서는 내·외임^{內·外任} 유사들이 하루 전날 서원에 입재하여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고 날이 밝기 전 사당에 올라 예를 올린다. 삭망례에서는 향사 때와는 달리 한 분 한 분, 신위마다 각각 분향한 뒤 재배하지 않는다. 주향인 일두의 신위전을 시작으로 3위에 차례로 분향한 후에 밖으로 물러나 사당 중문 앞에서 한꺼번에 재배를 올린다. 분향례에서는 춘추향사 때와는 달리 신주독을 열지 않고 예를 올린다.

정여창 신주독





분향(焚香)



2) 향사^{후祀}

(1) 향사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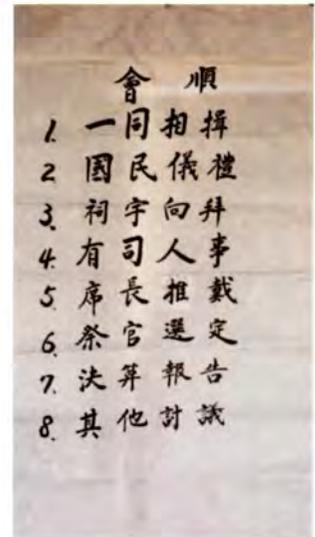
춘추향사는 매년 음력 2월과 8월 중정일 오전 5시 경에 봉행한다.

(2) 입재^사 및 향사준비

서원의 가장 큰 의례는 춘추향사이다. 삭망례가 있었던 2010년 3월 16일 오전, 서원의 강당인 명성당에서 원회^{院會}가 소집되었다. 원회란 향사를 앞두고 헌관 및 주요 제관들을 선출하는 모임이다. 이 날 시도기^{時到記}에 등재된 출석자는 함양지역 유림 30여명이다.

원회에서 제관선출은 출석한 유림 중에서 먼저 석장^{席長}을 선출한 후, 석장이 원회를 주재하여 선임한다. 석장은 임명근^{林命根}이 추대되었다. 제관은 향내 유림 중에서 예학에 조예가 깊고 실제 행례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상호 추천하기도 하고 또 소임에 따라 후진양성을 위하여 젊은 층의 신진 유림을 천거하기도 한다. 관례에 따라 대체로 서원 측에서 미리 천거를 받아 놓은 인사들을 중심으로 선출하는데 삼헌관을 비롯하여 모두 14인의 제관을 선임하였다. 제관을 선정한 후에는 제관선정기^{祭官選定記}를 기록하여 참석한 유림들에게 확인한 후 강당에 붙여 공고한다. 제관 선임 후에는 전년도 결산 보고와 남계서원 공원화 추진현황 등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및 토의를 한 후 원회를 마쳤다.

제관으로 선임된 사람들에게는 망기^{望記}를 적어 보낸다. 망기는 제관으로 천망되었음을 통보하는 문서로 입재일과 소임, 내정자의 이름을 적고 서원의 직인을 찍어 피봉하여 발송한다.



원회 회순



원회院會 시도기時到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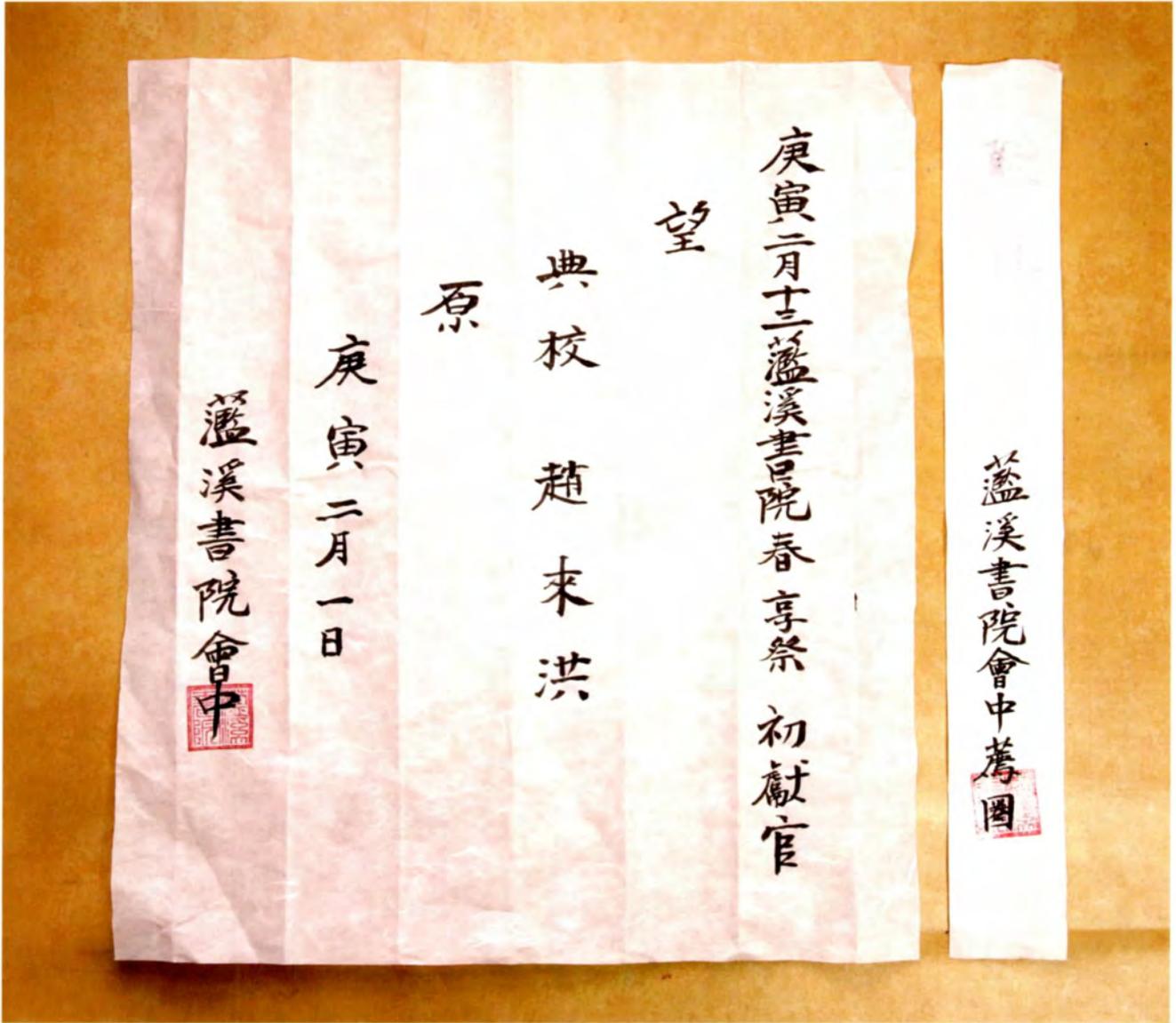
1

2

1. 원회의 석장(席長) 선출
2. 제관(祭官) 선정기부(祭官選定記) 작성







庚寅二月十三日 濫溪書院春享祭 初獻官

望

典校 趙來洪

原

庚寅二月一日

濫溪書院會中



濫溪書院會中 薦



1

2

- 1. 망기^{망기} 작성
- 2. 초헌관 망기

제수구입

남계서원의 내·외임 유사는 향사 이틀 전 함양 시내 재래시장에서 제수를 구입하였다. 제수는 품질이 좋고 정갈한 것을 고르는 것이 원칙이며, 가격을 흥정하지 않는다. 옛날에 비해 서원의 재정적 기반이 많이 약해진 요즘은 서원 자체 예산만으로는 향사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제수비용은 대략 200여만원이 소요되는데, 군에서 150만원 정도 보조를 받고 나머지는 서원의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3

- 1. 제수구입
- 2. 제수물목록표
- 3. 제수 어해





제수근봉

제물은 고직사에서 손질하고, 마련된 제물은 주향위와 종향위를 구분하여 근봉한다. 근봉은 향사에 올리는 제물들을 제기에 실찬하기 전에 '삼가 봉한다'는 의미로 행하는 의례이다. 제물들을 품목별로 한지에 정성들여 써서 각 제물의 이름을 적는다. 근봉하는 제물들은 제기에 담을 제수뿐만 아니라 폐백, 향축 등 제상에 오르게 되는 품목이 해당된다. 또한 변(邊)에 담을 포과류(脯果類)로서 녹포(鹿脯)·어포(魚脯)·건조(乾棗)·울황(栗黃), 두포(豆脯)에 담을 해저류(醢醢類)로서 녹해(鹿醢)·어해(魚醢)·청저(靑蔗)·구저(韭菹) 등을 구분하여 근봉한다. 녹포(鹿脯)는 사슴고기 대신에 소고기 육포를 대용하고 어포는 북어포를 사용한다. 청저는 생무, 구저는 부추를 사용한다. 보궤(篋)에 담을 도미(稻米)와 서미(黍米)는 쌀과 조를 고두밥으로 찌서 담아 근봉한다.

- 1.2 제수를 손질하여 근봉한다.
3. 보궤(篋)에 담는 쌀과 조는 고두밥으로 찌는다.







Handwritten text on a scroll, likely a prescription or list of ingredients.

鹿脯 (Deobu) - Deer Spleen

大補元氣 (Dobu Won-gi) - Greatly Replenishes Qi

魚 (Eo) - Fi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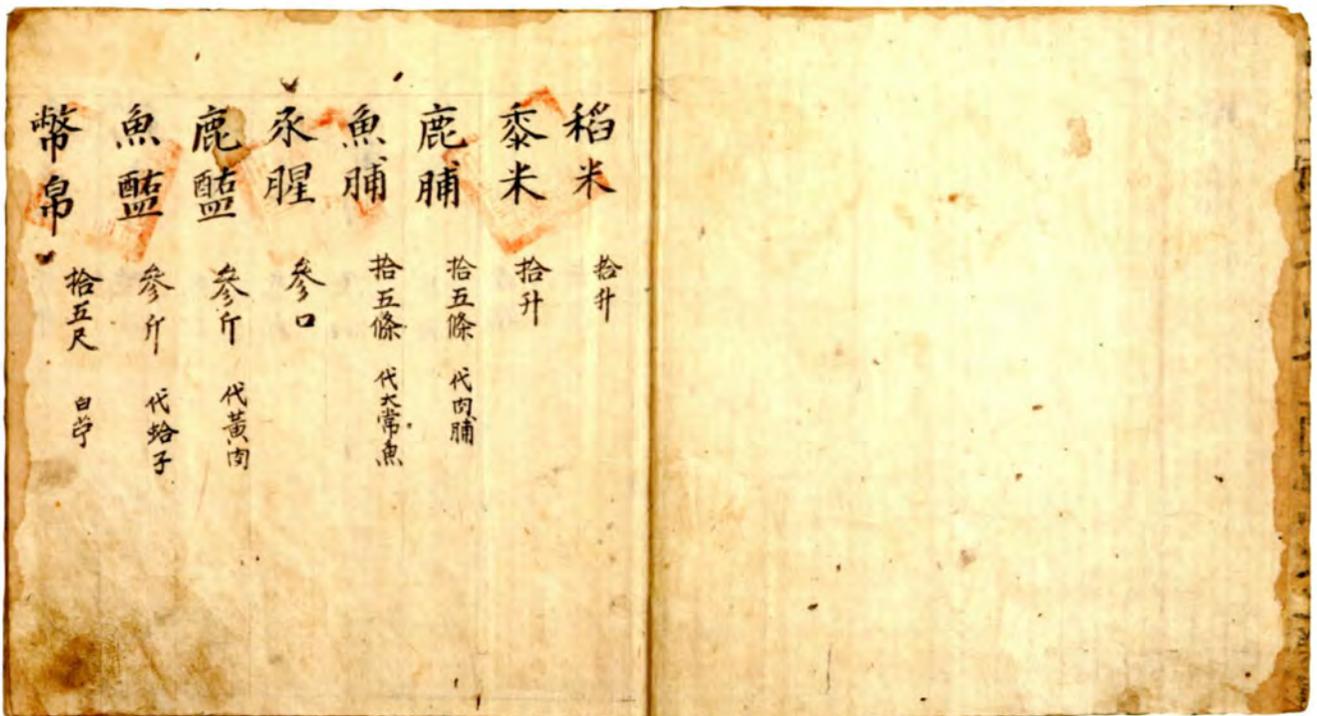
大補元氣 (Dobu Won-gi) - Greatly Replenishes Qi

大補元氣 (Dobu Won-gi) - Greatly Replenishes Qi

2

3

- 1. 제수기 〇〇〇〇를 보며 제수품목 확인
- 2-3. 제수기



입재^사

제관들은 본래 향사 3일 전에 입재하였으나, 지금은 전일 입재를 한다. 향사 전 날 오전 10시경부터 제관들의 입재가 시작되었다. 입재란 제사를 앞두고 음식과 행동을 조심하며 재계하는 것을 말한다. 서원에 도착한 제관들은 강당에 모여 상견례를 한 후 재계에 들어간다. 이후부터는 모든 행사를 초헌관이 주관하며, 서원 밖으로의 출입도 통제되고 오로지 제향에 관한 각자의 소임에 전념한다.

상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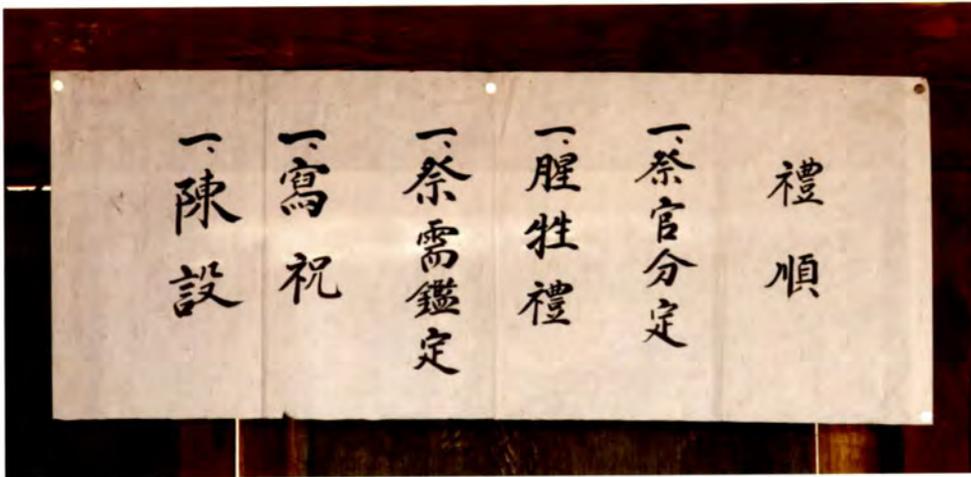




제관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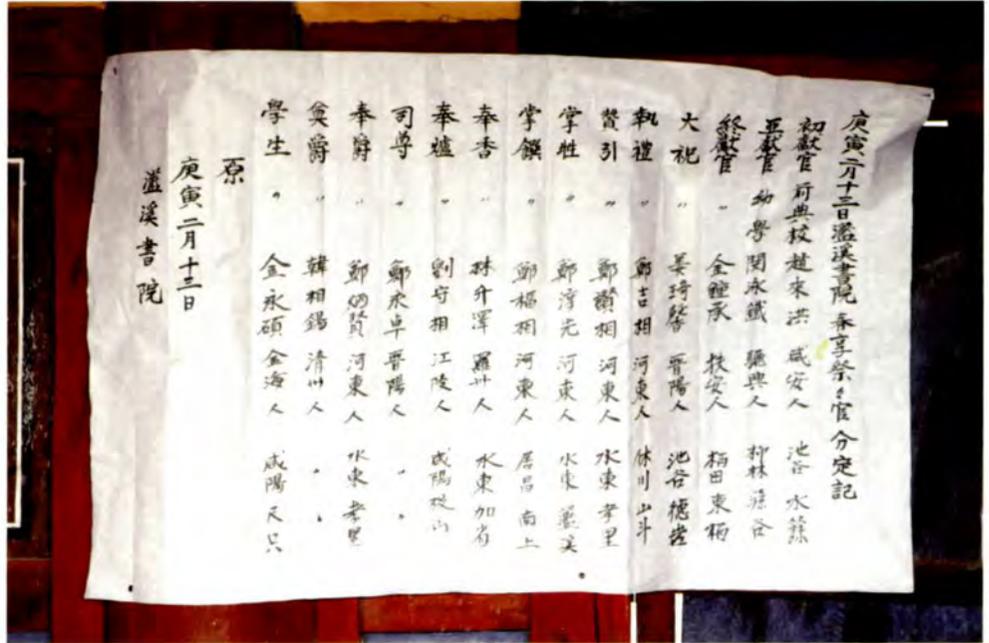
오전 11시 의관을 정제하고 강당에 모여 상읍례를 행한 후 좌정하고 제관을 분정한다. 제관은 지난 번 원회에서 이미 선임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유고가 없으면 그대로 분정하고 소임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뿐이다.

분정이 끝나면 소임과 제관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하여 분정내용을 초헌관에게 보고한 후 좌중을 돌며 각자의 소임을 주지·확인시키고, 강당 북벽에 게시한다.



분정기  작성





庚寅二月十三日 濳溪書院春享祭祭官分定記

| | | | | | |
|-----|-----|-----|-----|----|----|
| 初獻官 | 前典校 | 趙來洪 | 咸安人 | 池谷 | 水餘 |
| 亞獻官 | 幼學 | 閔泳鐵 | 驪興人 | 柳林 | 蓀谷 |
| 終獻官 | " | 金鍾承 | 扶安人 | 栢田 | 東栢 |
| 大祝 | " | 姜琦馨 | 晉陽人 | 池谷 | 德岩 |
| 執禮 | " | 鄭吉相 | 河東人 | 休川 | 山斗 |
| 贊引 | " | 鄭讚相 | 河東人 | 水東 | 孝里 |
| 掌牲 | " | 鄭淳光 | 河東人 | 水東 | 濳溪 |
| 掌饌 | " | 鄭福相 | 河東人 | 居昌 | 南上 |
| 奉香 | " | 林升澤 | 羅州人 | 水東 | 加省 |
| 奉爐 | " | 劉守相 | 江陵人 | 咸陽 | 磊山 |
| 司尊 | " | 鄭永卓 | 晉陽人 | " | " |
| 奉爵 | " | 鄭炳賢 | 河東人 | 水東 | 孝里 |
| 奠爵 | " | 韓相錫 | 清州人 | " | " |
| 學生 | " | 金永碩 | 金海人 | 咸陽 | 尺只 |

原

庚寅二月十三日 濳溪書院

1. 문정기 게시
2. 작성된 문정기



성생단에 생돼지를 올린다.

성생례(省牲禮)

성생례는 제관들이 제향에 올리게 될 희생(犧牲)을 결함이 없는지 감정하는 의식이다. 강당 오른쪽에 있는 성생단에 생돼지를 올려놓고 전 제관이 모인 가운데 성생홀기에 따라 성생 의식을 거행한다. 축과 초헌관, 유사가 한 바퀴 돌아보며 돼지에 특별한 흠은 없는지 살피고, 이어 술가지를 이용해 돼지 위에 물을 뿌리는데 이것은 샅된 기운을 물리친다는 벽사(辟邪)의 의미를 갖는다. 이어 대축이 돼지가 희생으로서 충분한지를 세 번 물으면 초헌관이 세 번 답한다. 이때 축이 '충(忠)'하고 세 번 묻고 헌관이 '돌(篤)'하고 세 번 답하는데 '돌'은 돼지가 충분히 살았다는 뜻이다. 성생례가 끝난 돼지는 고직사에서 손질한다.



돼지에 흠이 있는지 살핀다.





1. 벽사(辟邪)의 의미로 물을 뿌린다.
2. 성생례에 쓰인 솔가지

제수감정

제수감정은 제수를 진설하기 전에 제수의 품목과 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준비에 틀림이 없는지 모든 제관들이 함께 확인하는 절차다. 미리 근봉한 제수들을 누문(풍영루) 2층 다락으로 옮겨 감정 의례를 행한다.

헌관과 제관들이 좌정하면 집사가 제물들을 품목별로 상위에 올려 먼저 초헌관 앞에 가서 제수의 품목을 한 종목씩 부르며 감정을 요청하고 헌관은 음으로써 승인의 의사를 표한다. 다음은 아헌관 종헌관 기타 제관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물목의 감정을 펼한다.

제수기에 적혀있는 제물 물목은 다음과 같다.

祭物目錄

- 香七封
- 幣帛 五十二尺五寸
- 黃燭 十四柄
- 稻米 一斗七斤五升
- 黍米 一斗七斤五升
- 鹿脯 四十九條
- 鹿醢
- 醴酒 二斗一升
- 石魚 三束五尾
- 黃栗 一豆五合
- 大棗 一豆五合
- 刑臚 一豆五合
- 魚醢
- 曲子 三圓
- 眞墨 一丁
- 白筆 一柄
- 祝席 一立
- 祝壯紙 一張
- 油壯紙 一張
- 青菹
- 芹菹
- 豕一口



제수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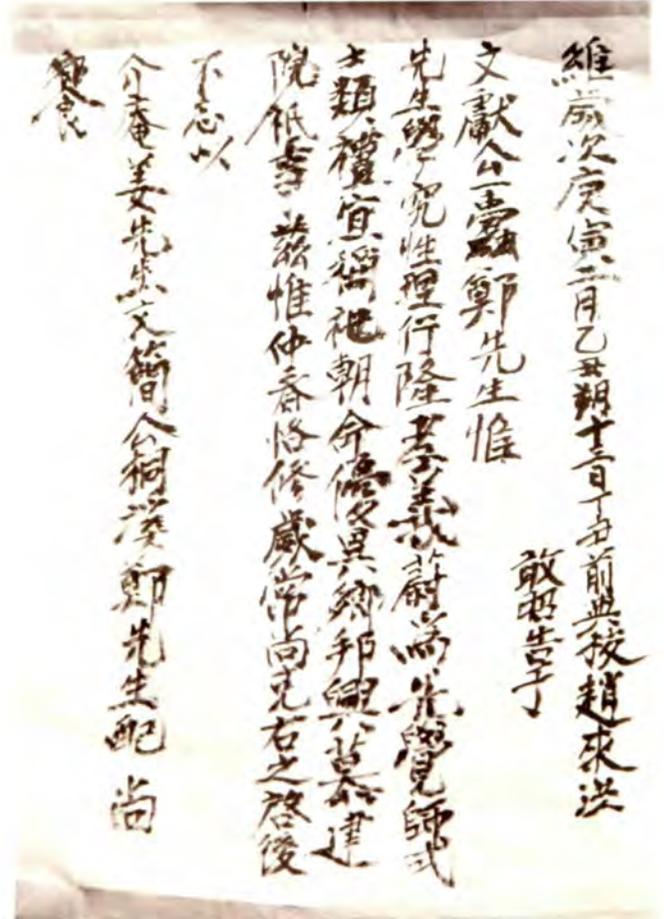
사축^{寫祝}

축문은 입재 당일 해가 지기 전 대축이 사당 앞 월대 위에서 사축한다. 사당 중문을 열고 꿇어앉아 대축이 축문을 작성하며, 초헌관이 대축의 동쪽에 앉아 감독한다. 완성된 축문은 유사가 사당 중문을 통해 들고 들어가 향탁의 왼쪽 축점 위에 올려 놓는다.

대축의 축문 작성







維歲次庚寅二月乙丑朔十五日前典校趙來洪

文獻公蠹鄭先生惟

敢昭告于

先生學究性理行隆孝義蔚爲先覺師式
士類禮宜稱祀朝命優異鄉邦緬六墓建
院低香茲惟仲春恪修歲常尙克右之啓後
下志以

介庵姜先生文簡公桐溪鄭先生配尙

饗

春秋常享祭文

維歲次庚寅二月乙丑朔十三日丁丑前典校趙來洪

文獻公一蠹鄭先生惟

敢昭告于

先生學究性理行隆孝義蔚爲先覺師式

士類禮宜稱祀朝命優異鄉邦興慕建

院祇事茲惟仲春恪修歲常尙克右之啓後

不忘以介庵姜先生文簡公桐溪鄭先生配

尙

饗

1. 축문
2. 축문은 향탁의 왼쪽 축점 위에 놓는다.



진설

준비된 제수를 소정의 제기에 담은 것을 실찬(實饌)이라 하고, 실찬한 제기를 법식에 맞게 제상 위에 차리는 것을 진설이라 한다. 향사 전일 오후 6시 진설 담당 집사들이 근봉한 제수를 들것에 실어 사당으로 옮긴다. 제수는 사당의 중문으로 들어가 소정의 제기에 실찬한다. 변두는 4변 4두인데, 변에는 건조(乾棗)·황율(黃栗)·녹포(鹿脯)·육포로 대신·어포(魚脯)를 담고, 두에는 근저(芹菹)·청저(靑菹)·녹해(鹿醃)·소고기 대신·어해(魚醃)·조기를 담는다. 보에는 도미(稻米)·쌀밥을 궤에는 서미(黍米)·조밥을 담는다.

- 1. 제수는 사당의 중문으로 들어온다.
- 2. 제수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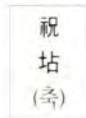
진설 순서는 정위인 문헌공위부터 소목의 위치에 따라 동벽의 동계 정운위, 다음에 서벽의 개암 강익위의 순으로 진설한다. 신위의 왼쪽(동쪽) 4변을 먼저 차리고 오른쪽(서쪽) 4두를 나중에 진설한다. 4변은 제 1행에 오른쪽을 상위로 하여 건조(대추)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황율(밤)을 놓는다. 제 2행에는 녹포(육포)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어포(명태포)를 진설한다. 4두는 제 1행에 역시 오른쪽을 상위로 하여 근저(부추)를 먼저 놓고, 다음에 청저(무)를 놓는다. 제 2행에는 녹해(소고기), 어해(조기)의 순으로 진설한다. 도미(쌀밥)를 담은 보는 변의 앞쪽에 놓고, 서미(조밥)를 담은 궤는 두의 앞쪽에 놓는다. 시성을 담은 조씨는 변 두 사이에 놓는다. 남계서원 향사의절에는 희생은 칠채(양비·양견·양협 및 척추의 일곱 부위)를 올리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돼지 한 마리를 잡아 정위에는 돼지머리와 앞다리 둘을 통째로 올리고 동·서벽 배향위에는 뒷다리 한 짝씩을 올리고 있다.





진설 상차림

남계서원진설도(藍溪書院陳設圖)





(3) 향사절차

향사 당일 오전 3시에 제관들은 기상하여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한다. 유사는 관세위에 물을 채우고 묘정에 자리를 깔아 배석을 만드는 등 향사의 마지막 준비를 완료한다. 쌀죽으로 간단히 아침식사를 마친 후, 강당에 모여 오전 5시 상읍례를 행하고 향사를 시작한다.

1

2

1. 제수가 전설된 후 세수를 장만한 부인이 인사를 하고 있다.
2. 아침식사





점시진설點視陳設

제집사들이 먼저 사당 묘정에 오르고 이어서 찬인이 헌관을 인도하여 묘정에 도열한다. 집례의 '점시진설點視陳設' 창홀에 따라 초헌이 사당에 들어가 진설을 살핀다. '점시'는 초헌관이 행례에 앞서 제물의 진설을 최종 점검하는 절차이다. 이때 찬인이 앞에서 인도하고 축이 따라 올라 신위의 위판을 개독한다. 점시가 끝나면 초헌관은 자리로 돌아간다. 이어서 축과 제집사들이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각자 봉무할 자리에 나아간다. 초헌관 이하 참례자 모두 재배하여 신을 맞이한다.

1. 관세點視
2. 점축點燭



초헌례^{初獻禮}

초헌례는 신위께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례이다. 남계서원에서는 초헌례 때 전폐례를 함께 행한다. 먼저 초헌관(조래홍)은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문헌공 일두 정여창의 신위 전에 나아가 꿇어앉는다. 봉향은 향합을 받들고 초헌관의 오른쪽에, 봉로는 향로를 받들고 초헌관의 왼쪽에 나아간다. 초헌관은 향을 세 번 피운다. 봉로와 봉향은 신위전 향탁 위에 향로와 향합을 올려놓고 자리에 돌아간다. 축이 폐비를 받들어 초헌에게 드리면 초헌관이 이를 받아 헌폐하고 다시 축에게 주어 신위전에 올린다. 초헌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 재배한다.



다음은 동벽의 개암 강의 신위전에 나아가 같은 방법으로 삼상향과 전폐를 행하고 재배한다. 봉향과 봉로가 삼상향을 돕고 축이 전폐를 돕는 것은 정위에서와 같다. 이어서 서벽인 문간공 동계 정온 신위전에 나아가 같은 방법으로 삼상향과 전폐례를 행한다.

1 2 3

1. 삼상향 三上香
2. 헌폐 獻幣
3. 전폐례 후 재배



3위에 대한 전폐례가 모두 끝나면 찬인은 초헌관을 작세위爵洗位로 인도하여 북향하여 선 후, 작을 씻어 집사자에게 준다. 다시 찬인은 초헌관을 정위준소에 인도하고 초헌관은 서향하여 선다. 봉작이 작을 초헌관에게 드리면 사준이 맥(덧개)을 들고 술을 따른다. 초헌관은 작을 봉작에게 주고 문헌공 일두 정여창의 신위전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봉작이 작을 초헌에게 주면 초헌관은 작을 받아 모사에 조금씩 술을 세 번 붓고 나서(삼제주三祭酒) 헌작한다. 전작이 작을 받아 신위전에 올린다. 삼제주는 술을 모사神에 세 번 붓는 의례로 향교의 석전에는 없는데 가례嘉禮의 예법과 혼용하여 홀기가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초헌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리나 꿇어앉는다. 축이 초헌관의 왼쪽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초헌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 재배한다.



다음에는 배위에 대한 초헌례를 행한다. 초헌관은 배위준소에 가서 술을 받아 동벽의 개암 강익의 신위전에 나아가 삼제주한 후 헌작하고 재배한다. 독축 절차만 없고 봉작과 전작이 헌작을 돕는 것은 정위 때와 꼭 같다. 이어서 다시 준소를 거쳐 서벽의 문간공 동계 정온의 신위전에 나아가 헌작하고 재배한다. 3위에 대한 초헌례가 모두 끝나면 찬인은 초헌관을 인도하여 자리에 돌아간다.

1

2

1. 삼제주 三祭酒

2. 전작 奠作







아헌례^{亞獻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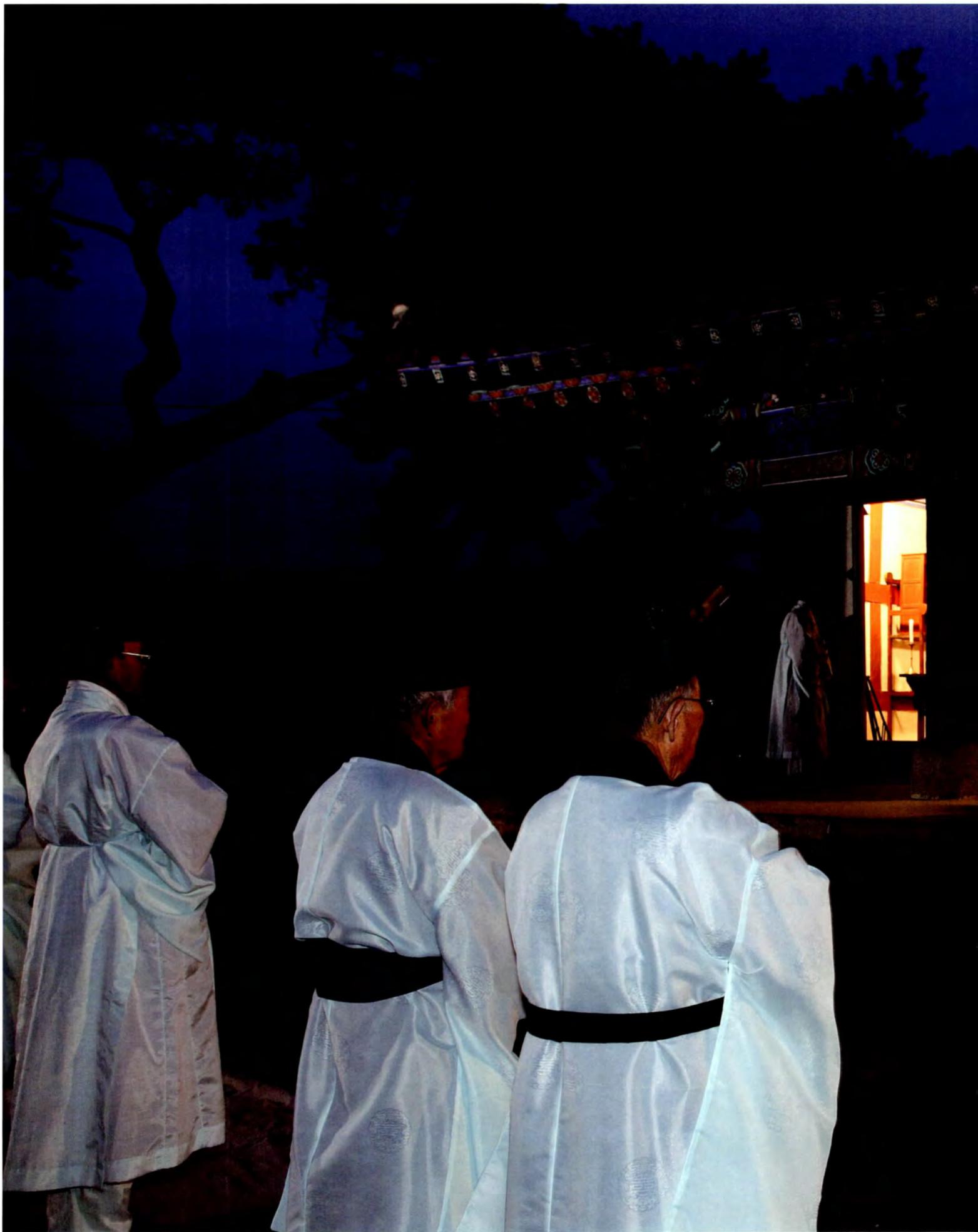
아헌례는 신위께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순서이다. 아헌관(민영철)은 찬인의 인도를 받아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정위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선다. 봉작이 아헌관에게 작을 드리면, 사준은 먹을 들고 술을 따른다. 아헌관은 문헌공 일두 정여창 신위전에 나아가 삼제주하고 헌작 후 재배한다. 이때 봉작과 전작이 돕는 것은 초헌례 때와 같다. 축문 낭독이 없고 작을 두 번째 작점^{作點}에 올리는 것만 다른 뿐 모든 절차는 초헌례 때와 같다. 배위에 대한 헌작례 역시 초헌례 때와 꼭 같다.

아헌관이 봉작^{奉作}에게 작을 받는다.



전작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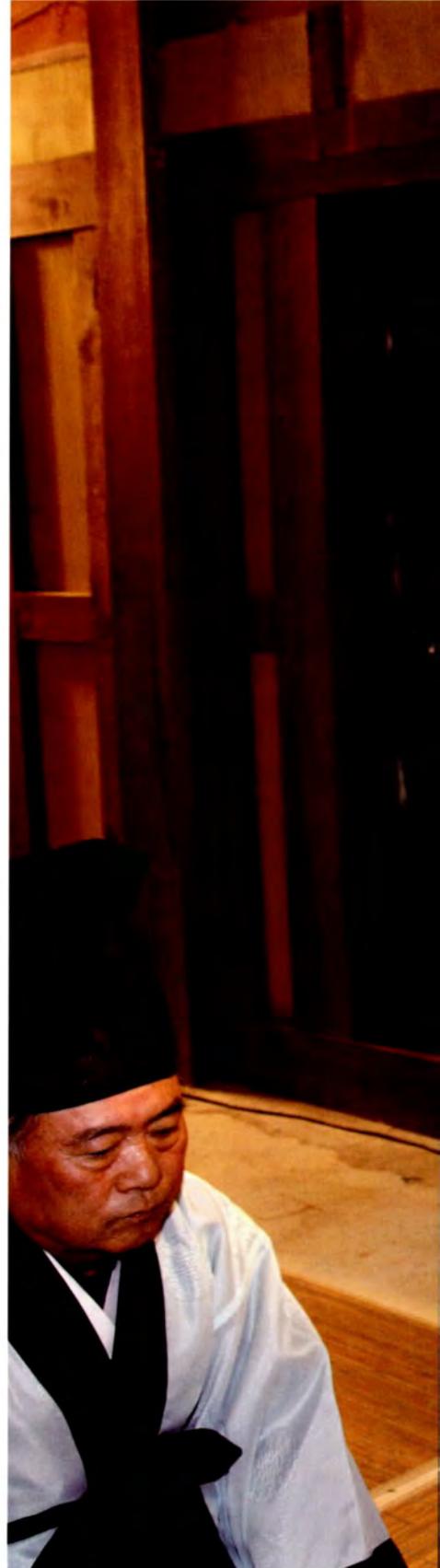


중헌례 終獻禮

중헌례는 아헌례의 절차와 같다. 다만 헌관이 중헌관(김종승)으로 바뀌고 세 번째 작점에 작을 올린다.

2

- 1. 세작 洗爵
- 2. 세번째 작점에 전작







음복수조 飲福受胙

음복례는 초헌관이 음복위에 나아가 신이 흠향한 술과 안주를 맛보는 의례이다. 묘우의 당상 동문 앞에 서쪽을 향하여 음복위를 마련한다. 찬인이 초헌관을 음복위로 인도하여 서향하여 선다. 집사자 1인이 작에 각 위의 술을 따라 초헌관의 왼쪽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초헌관은 재배한 후 꿇어앉아 작을 받아 술을 맛본다. 집사자 1인이 조뎌 : 도마에 각위의 조육을 조금씩 덜어내어 초헌관의 왼쪽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아 조육을 초헌관에게 드린다. 초헌관은 작을 들어 술을 다 마시고 일어나 재배한다. 초헌관이 자리에 돌아오면 재위자 모두 재배한다.

1. 음복 飲福
2. 재배 再拜





溫溪書院 春秋 享禮 笏

철변두 鐵邊豆

철변두는 제향이 끝나고 제물을 거두는 의례이다. 축이 신위전에 나아가 변두를 하나씩 조금 옮겨놓는 것으로 같음한다. 철변두가 끝나면 초헌관 이하 참례자는 모두 함께 재배하여 신을 보내드리는 송신례를 행한다.

남계서원의 홀기에는 철변두 절차에 망예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축은 폐백과 축판을 거두어 망예위에 나아가 서향하여 태우고 감(구덩이)에 묻는다. 찬인이 초헌관의 왼쪽에 나아가 예필을 아뢴다. 이로써 신위께 드리는 모든 의례는 끝나게 되므로 축은 위판을 합독한다. 찬인은 초헌 이하 제관을 모두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고 장찬은 예찬을 철찬하고 문을 닫고 나온다.

의례가 끝난 후 제관들은 명성당 강당에 모여 개좌(開座)를 한다. 이때 별도의 음복(飲福) 없이 향사에 대한 간단한 평가를 한 후 제사에 쓴 제물과 행사(行奠) 여비를 나누어 준다. 개좌 후에는 간단하게 아침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1

2

1. 창출(唱出)
2. 송신례







철변두 徹邊豆

1

4

2

3

1. 분축 焚祝
- 2, 3. 예감 饗坎
4. 합독 盥楮





1

3

2

12. 제사에 쓰인 제물은 제관에게 나누어 준다.
3. 행자와 치봉한 제물을 전달한다.





廬

石

8

한글
고려대

3) 제물^{祭物}과 제기^{祭具}

서원향사에 쓰는 제기와 제물은 국가전례인 향교석전의 예에 준하여 올린다. 국가전례는 대사·중사·소사로 구분되어 제사의 위격^{位格}에 따라 차리는 제수의 종류 및 품수^{品數}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국조오례의』와 『태학지』 등의 예전^{禮典}에 규정된 제기의 종류와 예찬^{禮讚}을 참고하여 남계서원의 제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변^邊 · 두^豆

변^邊은 마른 제수를 담은 그릇으로 신위의 왼쪽(동쪽)에 차리고, 두^豆는 물기 있는 제수를 담은 그릇으로 신위의 오른쪽(서쪽)에 차린다. 국가대사에는 12변 12두를 차리고, 중사에는 10변 10두, 소사에는 8변 8두 이하를 차리는 등 품수에 차등을 둔다. 조선시대 관학^{官學}인 향교석전은 소사의 예에 해당하므로 8변 8두를 차리는데, 사학^{私學}인 서원은 그보다 낮추어 4변 4두 이하로 진설한다.

『남계서원의절』에는 4변 4두를 쓰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변^邊에는 건조^{乾菜} 대추 · 황율^{黃栗} · 밤 · 녹포^{鹿脯} : 육포로 대신 · 어포^{魚脯} : 명태포를 올리는데 녹포는 사슴고기 대신에 소고기 육포로 대신한다. 두^豆에는 근저^{芹菹} · 청지^{菁菹} : 무 · 녹해^{鹿醃} : 소고기로 대신 · 어해^{魚醃} : 조기를 올리는데 녹해는 역시 소고기로 대신한다.

보^俎 · 궤^醜

보^俎는 유기로 만든 제기인데 몸통과 뚜껑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양은 보는 네모나고 궤는 둥글다. 보^俎에는 도^稻 : 쌀와 량^梁 : 기장을 담고, 궤^醜에는 서^黍 : 기장과 직^稷 : 피알을 담는다. 보와 궤는 짝을 이루어 변과 두 사이에 놓는데 보는 신위의 왼쪽(동쪽)에, 궤는 신위의 오른쪽(서쪽)에 진설한다. 향교석전에서는 2보 2궤를 쓰는데 서원에서는 줄여서 보통 도와 서를 담은 1보 1궤를 올리며, 남계서원에서도 1보 1궤를 진설한다. 현재 남계서원의 보와 궤 제기는 다른 서원들과 다르게 같은 모양의 둥근 제기로 사용하고 있다.

조^俎

조는 소·양·돼지 등의 희생^{犧牲}을 담은 제기이다. 현재 성균관석전에는 대사의 예에 따라 우성^{牛腥} : 소, 양성^{羊腥} : 양, 시성^{豕腥} : 돼지의 삼생^{三牲}을 쓰고, 향교석전에는 양성·시성을 올린다. 남계서원 향사에는 시성^{豕腥} : 돼지 한 가지만을 올리는데 돼지 한 마리를 잡아 정위에는 돼지머리와 앞다리 둘을 통째로 올리고 배위에는 뒷다리 한 짝씩을 올리고 있다.



변^邊



두^豆



궤^醜



보^俎



정위 시성^{正位 豕腥} : 돼지머리와 앞다리



배위 시성^{背位 豕腥} 뒷다리



비

비

비는 신위에게 드리는 예물인 폐백(幣帛)을 담는 대나무로 만든 광주리이다. 폐백은 향교 석전은 서에는 저포(苧布: 모시)를 사용하는데, 남계서원 향례의절에는 백건(白絹)을 올리는 것으로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지금은 보통 면포나 한지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작

작·점

작(爵)은 제향 시 신위에 술을 올리는 동(銅)으로 만든 술잔이다. 위로는 두 개의 기둥이 있고 아래에 세 발이 달려 있다. 『석전의釋奠儀』에 말하기를, “작(爵)의 무게는 1근 8량(兩)이요, 기둥을 합한 높이는 8촌 2푼이며, 깊이는 3촌 3푼이다. 아가리의 직경(直徑)은 6촌 2푼이요, 넓이는 2촌 9푼이다. 두 기둥에 세 발이 있고, 유(流)와 반금(扳金)이 있다”했다. 『시례기도설(詩禮器圖說)』에 말하기를 “마시는 그릇으로서 한 되를 담을 만하고, 위의 두 기둥은 마셔도 다하지 않는다는 뜻을 취한 것으로, 지나침을 경계한 것이다(飲器受一升 上兩柱取飲不盡之義 戒其過也)”하였다. 정위와 배위 각 신위 마다 초헌·아헌·종헌용으로 셋씩 준비한다.

점(盞)은 죽판(祝版)이나 작(爵)을 올려놓기 위하여 동으로 네모나게 만든 평평한 받침이다. 죽판을 올려놓는 것은 죽점(祝地), 작을 올려놓는 받침을 작점(爵地)이라고 한다. 작점은 각 신위마다 작과 짝을 이루어 초헌·아헌·종헌용으로 셋씩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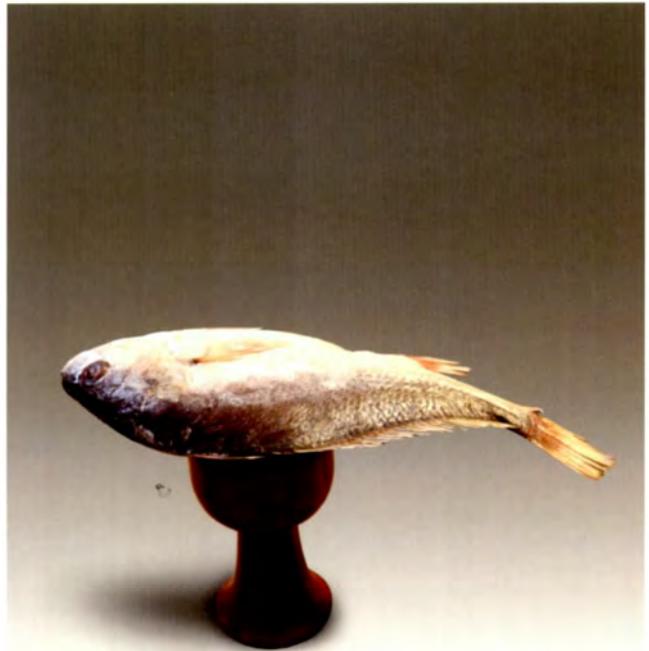
준·작·역

준(尊)은 제향 때 사용하는 동으로 만든 술항아리이다. 향교석전에는 초헌용으로 예제(禮齊)를 담는 희준(犧尊), 아헌용으로 양제(監齊)를 담는 상준(象尊), 종헌용으로 청주(淸酒)를 담는 산뢰(山罍)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남계서원 향례의절에는 정위준소에는 희준, 배위준소에는 상준을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작(斝)은 준소와 관세위에서 술이나 물을 뜨는 국자와 같은 기구이다. 손잡이 부분에 용머리를 조각하여 용작(龍斝)이라고도 한다.

역(鬯)은 술 항아리를 덮는 덮개이다.









書院

嘉靖四十五年丙寅七月日
宣賜



蘆溪

明

爵洗位

盥洗位

3. 남계서원 향사의 특징

남계서원은 일두 정여창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1552년(명종 7)에 창건되었고, 1556년(명종 21)에 사액서원이 되었다.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丁酉再亂)으로 소실된 뒤 나촌(羅村)으로 터를 옮겼다가, 1612년(선조 43) 옛 터인 현재의 위치에 다시 옮겨 중건되었다. 남계서원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서원으로,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 때 훼손되지 않고 존속한 서원 중의 하나이다. 건물 구조는 정문인 풍영루와 강당 및 사당이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서원의 일반적인 배치방법인 전학후묘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이 건물 배치에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과 달리 남계서원은 서원의 제향공간에 속하는 건물들은 서원 영역 뒤쪽에 자리하고, 강학공간에 속하는 건물들은 서원 영역 앞쪽에 자리 잡은 조선시대 서원건축의 초기 배치 형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서원이다. 사당에는 정여창을 주벽으로 하여, 좌우에 정온과 강익의 위패가 각각 모셔져 있다.

남계서원 향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계서원에서는 매월 삭망 분향례를 내·외임 유사가 전일 입재하여 행한다.

둘째, 춘추향사에서는 제관들이 전일 입재하여 향사준비를 옛 법식에 맞추어 엄숙하게 행하고 있다. 옛날에 3일 입재하던 것이 전일 입재로 기간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지금도 제향에 올리는 희생에 대하여 성생례를 행하고, 제물감정을 옛 방식대로 철저히 행하고 있다. 성생례는 제관들이 예복을 갖추고 성생단에 도열하여 성생홀기 창홀에 따라 의식을 행하고, 제물 근봉과 감정절차도 풍영루에 올라 엄숙하게 행한다.

셋째, 향사절차에서는 전폐례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 초헌례 때에 전폐례와 헌작례를 함께 행한다. 초헌관이 신위전에 올라 먼저 삼상향과 헌폐를 한 후 헌작례를 행한다. 먼저 정위인 일두 정여창 신위전에 나아가 향을 세 번 피우고 헌폐한 후 재배한다. 다음에 배위인 동벽의 개암 강익, 서벽의 동계 정온 신위전에 같은 방법으로 전폐례를 행한다. 전폐례가 끝난 후에 초헌관은 정위 준소에 가서 술을 받아 일두 정여창 신위전에 헌작한다. 이때 술을 신위 전에 올리기 전에 삼제주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삼제주는 모사에 술을 세 번 붓는 의식으로 가례의 예법과 혼용하여 홀기가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관학인 향교석전에서 삼제주 절차가 없기 때문에 다른 서원에서는 이를 준용하여 행하지 않는데 남계서원을 비롯하여 도동서원 등 이 지방 일부 서원에서만 행하고 있다. 독축은 정위에만 하고 배위에는 독축이 없다. 정위에 헌작과 독축이 끝나면 동벽과 서벽의 배위에 헌작하며, 아헌례와 종헌례 헌작 때에도 삼제주한다.

丁巳八月以降

時到記

濫竽書院

祇謁錄
(二)

4. 남계서원의 운영과 전승

1) 운영과 조직

남계서원은 함양 사람들이 당시 정착되어 가던 성리학을 배우는 학교기관이었고, 서로 모여 여러 가지 향촌과 관련된 의견을 나누던 향촌기구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었다. 남계서원에 출입했던 유림들에 대한 기록인 『원록院錄』을 통해 서원에 관계했던 유림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남계서원에 남아있는 자료는 17세기 이후의 것으로 추정된다. 『원록』에는 하응도·박이장·하훈안도·문경호·정경운 등 남명南冥의 핵심 문도들이 망라되어 있어 남계서원의 학풍을 잘 보여주고 있다.²⁷⁾

27 백지국, 『남계서원의 자료정리 성과·현황·과제』, 『서원 기록문화 정리,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워크숍 자료, 2012)

원회院會



17세기 이전에 활동한 유생들은 서원의 건립을 추진하거나 기부한 자, 서원의 임원, 강회 등에 참석한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²⁸

28 윤희면, 「경상남도 함양의 남계서원 연구」, 『남명학연구』 제26집, (2008) 379~380쪽.

| 연대 | 관련 사항 | 인물 | 참고자료 |
|----------------------------|-------|-------------------------|---------------------------------------|
| 1552년(명종 7) | 건립추진 | 강익(원장), 임회무 등 5명 | 윤희면, 「경상남도 함양의 남계서원 연구」, 『남명학연구』 제26집 |
| 1555년(명종 10) | 미곡기부 | 강익, 노흠 등 23명 | |
| 1556년(명종 11) | 미곡기부 | 박인경, 강위룡, 노사훈 등 58명 | |
| 1565년(명종 20) | 강회講會 | 노사회, 김우공, 김우옹, 노진 등 21명 | |
| 1552~1580년 (명종 7~선조 13) | 원임院任 | 강익 등 23명 | 『고대일록高臺日錄』 1권 임진 (1592) 겨울 12월 편 |
| 1584년(선조 17) | 원장院長 | 노사예 | |
| 1594년(선조 27) | 원임 | 노사상(원장), 정경운(유사) | 『陽集』 권4, 雜著, 「通諭咸陽士林」 丁巳條 |
| 1600~1610년 (선조 33~광해 2) | 원장 | 노사계, 노사회, 이유, 하응도, 이대일 | |
| 1617년(광해 9) | 원장 | 정경운 | |

특히 개암 강익(介庵 姜翼, 1523~1567)은 지역의 유림을 선도하여 남계서원의 건립을 추진하였고, 그의 의지를 흥와 노사예(弘窩 盧士豫, 1538~1594)와 도계 노사상(道啓 盧士尙, 1559~1598) 형제²⁹가 적극적으로 도왔던 것으로 보인다. 노사예·노사상 형제의 적극적인 면모는 『고대일록高臺日錄』 4권 계묘년(1603)에 수록된 「제노참봉문祭廩參奉文」의 내용을 통해 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³⁰

29 노사예와 노사상은 사촌형제 간으로, 둘 다 효성이 지극하여 광해군 때 칭려되었다. 칭려비는 함양군 지역면 개평리에 소재되어 있다.

17세기의 유생들은 『원록院錄』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이 외에도 『참제록參祭錄』 등을 통해 남계서원에 들고난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다. 남계서원에는 1911년부터 지금까지 제례에 참석한 사람들을 기록한 『참제록』이 보관되어 있어 그 현황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이전의 것으로는 1800년대(戊子 8월)의 것으로 추정³¹ 되는 『참제록』(권4)이 남아있다.

30 예전에 개암 강익이 미래의 학도를 일으키고, 선정(先正)을 추송(追崇)하는데 뜻을 두었네. 많은 사람이 경탄하며 참여했지만, 그 중에서도 공의 형제가 가장 두드러졌었네. 논의하는 데 있어서 거역함이 없어, 시끄러운 잡음을 배격하고서 성실한 노력으로 도우니, 옛 학교가 흥기하여 많은 선비를 배출하였는데, 저 남계서원을 바라보면 글 읽는 소리 왕성하였네. [이하 생략](『고대일록』 4권 계묘(1603) 가을 8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바람직한 조직의 운영과 행동을 규율하기 위한 규정이 만들어지기 마련이다. 남계서원 역시 원규院規를 통해 서원 내의 규율을 엄격히 규정하였다. 남계서원의 원규는 2가지가 전한다.

31 제관 중 청환수, 청환중 등이 있는데 이들의 풀림자로 보았을 때 1800년대로 추정됨(2013.2.20 정경무 유사 인터뷰)

그 중 하나는 『고문서집성 24권』(남계서원 편)에 수록된 날장(1장)의 문서인데, 1923년³² 亥年에 작성된 남계서원의 원규로 추정되고 있다. 이 문서의 원본은 온전하게 보존되지 못하고 화재로 글자 일부가 마모되었다. 주요 내용은 서원의 재산과 물품의 관리, 향사 비용 등에 관한 것이다.³² 특히 유사의 역할이 재산과 물품의 관리임을 명시하고 있다(有司傳受時財產及物品必對照後引繼事 유사는 인수인계할 때에 재산과 물품을 반드시 대조한 뒤에 인계할 것).

32 상세내용은 참고자료(132쪽) 참조

다른 하나는 남계서원 내 현판으로 남아 있는 원규이다. 계속년에 제작된 이 원규는 지금까지 남계서원을 유지하는 기본 원칙이 되어왔다. 1923년에 발간된 『남계서원지』에도 이

33 상세내용은 참고자료(132쪽) 참조

원규가 수록되어 있다. 이 원규에는 서원이 지향하는 바, 제생^{諸生}들이 지켜야할 규율과 도리, 유사에 대한 임기와 자격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 중 운영과 관련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³

서원의 제생들은 독서에 정진해야 하며, 의문이나 어려운 내용을 강구^{講究}하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쓸데없이 말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권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이 무단으로 외출하거나, 출입이 잦은 것도 금하고 있다[諸生常宜靜處各齋 專精讀書 非因講究疑難 不宜浪過他齋 虛談度日 以致彼我荒忘思廢業 無故無告 無頻數出入] 서원의 책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고 여색과 술은 멀리해야 하며, 형벌은 금하고 있다[書不得出門 色不得入門 酒不得釀 刑不得用] 또한 혹 서원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죄가 있으면 작은 죄는 유사가, 큰 죄는 상유사와 함께 상의하여 형벌을 논하도록 하였고[若院屬人有罪 則不可舍 小則有司 大則與上有司同議論罰], 사사로이 하인을 부리거나 개인적인 노여움으로 벌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有司及諸生 常須愛護下人 院事齋事外 毋得人人私使喚 私使怒罰].

서원 원규에 의하면 서원의 임원은 상유사와 유사의 직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유사와 상유사의 임기는 2년이며, 그 중 유사는 서원의 부근에 사는 청렴하고 재간^{才幹}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상유사는 선비 가운데 사리를 알고 의로운 행동을 하며,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사람으로 삼는다고 하였다[院有司 以近居廉幹品官一人爲差定 又擇儒士之識事理有行義衆所推服者一人 爲上有司 皆二年相遞].

44 1612~1682년까지의 경임안은 전란으로 인해 소실되었다. 《백지국, 『남계서원의 자료정리 성과·현황·과제』, 『서원 기록 문화 정리,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워크숍 자료, 2012.04.18》

남계서원의 원임들에 대해서는 「남계서원경임안^{南溪書院經任案}」(1552~1687년)을 통해 그 내역을 알 수 있다³⁴. 경임안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원장의 이름은 강익이고, 유사는 노사에 이다. 그리고 유사 외에 전곡유사^{典穀有司}를 별도로 두었는데 인원은 2명으로 양홍택^{梁弘澤}, 임희수^{林希秀}가 맡았다. 하지만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시기에는 전곡유사가 4명으로, 유사도 2명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즉 원임의 직책은 원장과 유사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유사와 전곡유사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인원이 조정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5 본문 17쪽 참조

남계서원의 건립 초기 임원에 대해서는 역사부분³⁵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참재록과 서원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원장 이외의 임원들에 대한 변화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제목(권) | 연도 | 직책(명) | 향사시기 |
|---------|--------|----------------------|----------|
| 참제록(4권) | 1800년대 | 有司(2), 典任(1) | 戊子 8月 秋享 |
| | | 有司(2), 典有司(1) | 己丑 2月 春享 |
| | | 有司(1), 進士(1), 典有司(1) | 庚寅 2月 春享 |
| | | 掌議(2), 典有司(1) | 乙未 2月 春享 |
| | | 掌議(2), 道有司(1), 典任(1) | 丁酉 2月 春享 |
| | | 掌議(2), 典任(1) | 丁酉 8月 秋享 |
| | | 掌議(1), 內任(1), 典任(1) | 戊戌 8월 秋享 |
| 참제록(1권) | 1911년 | 掌議(2), 典任(1) | 辛亥 2月 春享 |
| 참제록(2권) | 1920년 | 道有司(1), 掌議(2) | 庚申 2月 春享 |
| 참제록(3권) | 1932년 | 有司(2), 直月(1) | 壬申 2月 春享 |
| 참제록(4권) | 1956년 | 有司(2) | 丙申 2月 春享 |

1800년대의 자료에는 '전임^{典任}, 전유사^{典有司}'라는 기록도 있는데, 이를 통해 향사시에 의전^{儀典}을 담당하는 임원을 따로 두었다는 사실도 추정해볼 수 있다. 또한 이 『참제록』을 통해서 유사 명칭의 변화상을 살펴 볼 수 있다. 제관들의 마지막에는 항상 유사^{有司}가 기록되어 있는데, 유사 명칭이 '장의^{掌議}, 내임^{內任}, 진사^{進士}' 등으로 표기된 부분들도 있어서 명칭이 상황에 따라 바뀌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 1935년(소화 10)에 간행된 『남계서원지』를 살펴보면 남계서원의 임원은 도유사^{道有司} 1인 · 유사^{有司} 2인 · 직월^{直月} 1인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서원을 지키는 사람들로 묘직^{廟直} 1인 · 고직^{庫直} 1인 · 출사직^{出使直} 1인 · 방목직^{房木直} 1인 · 소동^{掃童} 1인을 두어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968년(무신) 경임안 역시 유사 2인만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시기부터는 유사 2인이 고착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략적인 시기는 남계서원 『참제록』을 통해서 1932년 경임을 짐작할 수 있다.

남계서원의 이러한 임원 직제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남계서원은 지금도 원장, 유사 체제이다. 다만 유사는 내임유사, 외임유사로 나누어 서원의 안과 밖의 업무를 구분하고 있다. 내임유사는 서원의 재정이나 살림살이 등을 맡아 하는 직책으로 보통은 일두 정여창의 자손들이 맡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서원행사 관리, 문중과 연락 등의 역할을 한다. 외임유사는 총회 때 유림들의 추천을 통해 선정하는데, 타성^{他姓}의 함양유림이 맡는다. 내임유사를 도와 제관선정이나 서원의 큰일 등 주로 바깥일을 맡아서 한다. 내·외임 유사의 임기는 3년이고 재임을 한다. 다만 집안에 상을 당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사임한다. 과거에 비하면 서원의 규모, 재산, 관리 사항 등이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현재에도 이러한 체제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특히 지금의 남계서원에서는 교육 기능이 사라지고, 춘추 제례만 존속되고 있어서 제례 이외의 부분은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분위기이다.

한때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규정을 새롭게 제정하여 서원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아쉽게도 정기적인 운영위원회가 성립되지는 못하였다. 남계서원의 운영위원회는 1974년 발족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영위원회 정관^{定款}』은 1994년 제정되었다가, 2005년에 일부 개정되었다. 그런데 1999년에 작성된 『운영위원회 규정(안)』이 있는 것으로 보아, 1999년 신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정관을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994년 이후부터 운영위원회의 존속 기간까지의 회의록 자료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 남아 있는 회의록을 통해 보더라도 운영위원회의 소집이 주로 당해년에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 때문인지 2013년 현재의 남계서원 운영체제 속에서 기존의 운영위원회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남계서원의 직제는 향후에도 원장과 내·외임유사의 체제로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남계서원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서원 중 하나에 속해 있고, 사적으로서 서원의 주위가 정비되고 있는 현황이기 때문에 향후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운영조직이 변화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계서원의 향사와 업무에 대한 제반 사항 등은 원회^{院會}를 통해 의결된다. 원회는 일 년 중 서원향사가 개최되는 시기에 두 번 운영된다. 봄에는 음력 2월 초하루, 가을에는 8월 초하루로 고정되어 있다. 원회 때는 서원 원장·유사·향교전교·유도회장 등 지역 유림 50~70여 명이 참석한다. 본문의 원회 내용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기록영상물을 제작하며 조사했던 2010년 3월 16일(음 2.1)의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원회가 열린 3월 16일은 분향례와도 겹치는 날이기 때문에 내임·외임유사는 하루 전날 저녁에 서원에 입재하였다. 2010년의 유사는 내임유사 정이상(1934년생), 외임유사 노재용(1939년생)이 역임했다. 입재한 두 유사는 유복을 점검하고, 분정기를 작성할 종이를 점검하는 등 분향례와 원회를 치르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를 마친다.

원회는 3월 16일 오전 11시 경 시작한다. 유림들은 1시간 전부터 미리 도착하여, 자신들의 도착을 알리는 시도기를 작성한다. 이 날 약 40여명의 함양 유림들이 모였다. 모인 유림들 중에서 석장^{席長}을 추대하고, 석장의 진행에 따라 원회를 진행한다. 원회의 주요 안건은 춘향제 봉행 제관 선출과 예산 결산보고이다. 먼저 춘향제를 봉행할 제관이 선출되면 동시에 분정기를 작성한다. 제관 선출이 완료되면 예산 결산 내용을 보고하는데, 전년도 추향사 이후부터 현재까지가 회기에 해당한다. 모든 회의가 끝나면 점심을 먹고 난 후 망기를 작성해 제관들에게 보낸다.

현재 남계서원의 운영비는 서원 땅의 도조(연 350만원 정도)와 서원의 땅을 판 돈의 이자, 함양군의 지원금(연 400만원) 등으로 충당된다.

2) 전승과 지속

서원의 중요한 기능 중에는 교육부분이 있다. 과거 전통적인 남계서원의 교육은 강회(講會), 통독(通讀)을 통해 이루어졌고, 간혹 유명한 학자들을 모셔다 강론(講論)을 듣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강익의 『개암집(介庵集)』의 「연보(年譜)」³⁶나, 이견창의 『남명선생문집(南冥先生文集)』의 「남명선생편년(南冥先生編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³⁷

하지만 지금의 남계서원에서는 별도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현대화 과정 속에서 서원의 역할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남계서원의 주변은 서원이 사적 제 499호로 지정된 이후 주변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정비 사업과 더불어 한옥 체험시설을 추진 중이다. 6개의 동으로 세워질 한옥 건물에서는 전통교육, 전통문화체험 등을 펼쳐 서원의 교육기능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 별도의 전시관을 세워 남계서원의 유물을 보존하고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남계서원에서는 향사, 분향례 등과는 별도로 '일두정여창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는 제례를 연 1회 지낸다. 행사 일은 원래 단옷날이었으나 사정에 따라 변경되기도 한다. 2010년에는 10월 9일에 지냈다.

36 가정 41년 임술(1956년) 무분에 보면 강익이 매달 초에 제생들을 모아 통독하였음을 알 수 있다(嘉靖四十一年壬戌先生年四十歲 率諸生 春秋院享之餘 執經論辨 或至累日 遠方士子之有志於學者 爭駢趨而承學焉 先生乃定諸生通讀之規 每月朔 會諸生講讀 士多有成就者).

37 윤희면, 「경상남도 함양의 남계서원 연구」, 『남명학연구』 제26집(남명학회, 2008) 375-376쪽.

참고자료

남계서원 원규: 『고문서집성 24권』(남계서원 편) 수록 문서

- 一. 有司傳受時財產及物品必對照後引繼事
유사^{有司}는 인수인계할 때에 재산과 물품을 반드시 대조한 뒤에 인계할 것
- 一. 院土税金自院擔當賭稅〇〇額數而若有災則看坪事
서원 토지의 세금은 서원에서 담당하고, 도세^{賭稅}는 정해진 액수에 의거하되,³⁸ 재해^災가 있을 경우에는 간평^{看坪}³⁹할 것
- 一. 享禮經用以賭租中春秋各十五石式例封調用事
향례^{享禮}의 경비는 도조^{賭租} 가운데 봄과 가을에 각각 하나 5석^石으로 하는 전례^{前例}에 따라 봉^封하여 적절히 사용할 것
- 一. 脯牛價一百五十兩以定事
포우^{脯牛}가^價는 150냥^兩으로 정할 것
- 一. 院中財用無証 不得施行事
서원 내의 재용^{財用}은 증빙^{證憑}이 없으면 시행하지 말 것
- 一. 有司行公時接待費用以十五兩以內的定事
유사가 공무^{公務}를 행할 때의 접대비용은 45냥 이내로 확정할 것
- 一. 院中書冊 非院中來讀者 切勿借給事
서원 안의 서책은 서원에 와서 읽는 사람이 아니라면 일절 빌려주지 말 것
- 一. 參謁員接待若有過費量宜削事
참알^{參謁} 인원의 접대에 과다한 경비가 있으면 적절히 삭감할 것
- 一. 書冊 每年經夏後 照數曝曬事
서책은 매년 여름이 지난 뒤에 수량을 살피서 포쇄^{曝曬}⁴⁰할 것

38 도세(賭稅)는……의거하되 원문은 '賭稅〇〇額數'인데, '〇〇' 두 글자가 원문의 훼손으로 판독할 수 없으므로 문맥을 살피 번역하였다. 도세는 소작농이 농지를 빌려서 경작하고 그 대가로 얼마씩 내던 곡식을 가리키는데, '도지(賭地)'라고도 한다.

39 간평(看坪)·지주(地主)가 도세를 매기기 위하여 추수하기 전에 실제로 가서 농작물의 흉흉을 살펴보는 일이다.

40 포쇄(曝曬) 책이 부패하거나 흙이 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햇볕에 널어 말리는 일이다.

一. 未盡條件推後補益事

미진한 조건^{條件}은 추후에 보충할 것

癸亥三月三日

계해년 3월 3일

『남계서원지』 수록 원규

一. 諸生讀書 以四書五經爲本源 小學家禮爲門戶 遵國家作養之方 守聖賢親切之訓 知萬善本具於我 信古道可踐於今 皆務爲躬行心得 明體適用之學 其諸史子集文章科舉之業 亦不可不爲之旁務博通 然當知內外本末輕重緩急之序 常自激昂 莫令墜墮 自餘邪誕妖異淫僻之書 不得入焉近眼 以亂道惑志

제생^{諸生}의 독서는 사서^{四書}와 오경^{五經}을 근본으로 삼고, 『소학^{小學}』과 『가례^{家禮}』를 입문서^{入門}로 삼는다. 국가가 인재를 배양하는 방법을 따르고 성현의 친절한 가르침을 지켜서 모든 선^善함이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옛 도를 오늘날에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서 몸소 행동하고 마음으로 체득하며 본체^{本體}를 밝히고 쓰임에 맞게 하는 학문을 하는데 모두가 힘써야 한다. 여러 역사(歷史), 제자^{諸子}, 문집^{文集}, 문장^{文章}, 과거^{科擧}의 학업 또한 널리 겸하여 통달하기를 힘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내외 본말^{內外本末}과 경중 완급^{輕重緩急}의 순서를 알아서 항상 스스로 격양^{激揚}하여 타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밖에 부정하고 거짓되고 요망하고 괴이하고 음란하고 편벽된 책은 모두 서원으로 들여와 눈에 가까이 함으로써 도를 어지럽히고 뜻을 현혹되게 하지 않도록 한다.

一. 諸生立志堅固 趨向正直 業以遠大自期 行以道義爲歸者 爲善學 其處心卑下 取舍眩惑 知識未脫於俗陋 意望全在於利欲者 爲非學 如有性行乖常 非笑禮法 侮慢聖賢 詭經反道 醜言辱親 敗群不率者 院中共擯之

제생들이 뜻을 세우기를 견고하게 하고 지향하기 바르고 곧게 하여 학업은 원대한 경지에 도달할 것을 스스로 기약하고 행동은 도의^{道義}로 귀착점을 삼는 것은 좋은 학문이고, 마음을 낮은 곳에 두고 취사^{取舍}가 현혹되어 지식이 비무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뜻과 희망이 오로지 이욕(利欲)에 있는 것은 잘못된 학문이다. 만약 성품과 행실이 상도^{常道}를 벗어나 예법을 비웃고 성현을 업신여기며, 법도와 도리를 속이고 위반하여 더러운 말로 어버이를 욕하거나 여러 사람을 거슬러서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서원에서 함께 의논하여 배척하도록 한다.

一. 諸生常宜靜處各齋 專精讀書 非因講究疑難 不宜浪過他齋 虛談度日 以致彼我荒_도思廢業 無故無告 無頻數出入 凡衣冠作止言行之間 各務切偲 相勸以善

제생들은 항상 자신의 서재_{書齋}에서 조용히 지내면서 오로지 독서에만 정진할 일이며, 의문이나 어려운 곳을 강구_{講究}하는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다른 서재를 찾아가 쓸데없는 말로 시간을 허비하면서 피차간에 생각을 어지럽히고⁴¹ 학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외출하지 말며, 자주 드나들지 말라. 의관, 행동거지, 언행 등에 있어 각자 서로 힘쓰고 도와서 선을 권면한다.

一. 泮宮明倫堂 揭伊川先生四勿箴 晦菴先生白鹿洞規十訓 陳茂卿夙興夜寐箴 此意甚好 院中以此揭諸壁上 以相規警

반궁_{泮宮}⁴²의 명륜당_{明倫堂}에는 이천선생_{伊川先生}의 「사물잡_{四勿箴}」⁴³과 회암선생_{晦菴先生}의 「백록동규_{白鹿洞規}」⁴⁴와 「십훈_{十訓}」⁴⁵과 진무경_{陳茂卿}의 「숙흥야매잠_{夙興夜寐箴}」⁴⁶을 걸어두었는데, 그 의미가 매우 좋으니, 서원 안에도 이것을 벽에 걸어두어 서로 바로잡고 경계한다.

一. 書不得出門 色不得入門 酒不得釀 刑不得用 書出易失 色入易污 釀非學舍宜 刑非儒冠事 凡爲諸生或有司 以私怒推打於外人之類 此最不可開端 若院屬人有罪 則不可舍 小則有司 大則與上有司同議論罰

책은 문 밖으로 내가서는 안 되고, 여색_{女色}은 문 안으로 들여서는 안 되며, 술은 빚어서는 안 되고, 형벌은 써서는 안 된다. 책은 내가면 잃어버리기 쉽고, 여색은 들여오면 더럽혀지기 쉽다. 술을 빚는 것은 학사_{學舍}에 마땅한 일이 아니고, 형벌은 유생의 일이 아니다. 제생_{諸生}이나 유사로서 개인적인 노여움으로 서원 밖의 사람을 구타하는 따위인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단서를 열어놓아서는 안 되는 일이다. 서원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죄가 있는 경우는 용서할 수 없으니, 작은 죄는 유사가, 큰 죄는 상유사_{上司}와 함께 상의하여 형벌을 논한다.

一. 院有司 以近居廉幹品官一人爲差定 又擇儒士之識事理有行義衆所推服者一人 爲上有司 皆二年相遞

서원의 유사 _{유사}는 부근에 사는 청렴하고 재간_{才幹}이 있는 품관_{品官} 한 사람으로 차정_{差定}하고, 선비 가운데 사리를 알고 행의_{行義}가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추앙하고 심복하는 한 사람을 선발하여 상유사_{上司}로 삼되, 모두 2년마다 교체한다.

一. 諸生與有司 務爲禮貌而相接 敬信而相待 諸生과 유사 _{유사}는 예를 갖추어 서로 만나고 공경으로 서로 대하도록 힘쓴다.

41 생각을 어지럽히고 원문은 '忘思'인데, '忘'은 '荒'의 오자(誤字)이므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42 반궁(泮宮) 성균관(成均館)을 가리킨다. 『시경(詩經)』 노수(魯頌) 반수(泮水)의 '즐거운 반수에서 잠깐 미나리를 뜯는도다. 노후가 이르시니 그 깃발을 보리라[思樂泮水 薄采其芹 魯侯戾止 言觀其旗]'라는 구절에서 유래한 것이다.

43 사물잡(四勿箴) 이천(伊川) 정이(程頤)가 지은 것으로 시잡(視箴), 청잡(聽箴), 언잡(言箴), 동잡(動箴)의 네 가지이다.

44 백록동규(白鹿洞規) 주희(朱熹)가 만든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의 규약으로, 그 학규(學規)의 대략은 오교지목(五教之目), 위학지서(爲學之序), 수신지요(修身之要), 처사지요(處事之要), 접물지요(接物之要)의 다섯 가지이고 이에 따른 세목이 각기 있다.

45 십훈(十訓) 주희가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기 쉬운 후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열 가지를 뽑아 제시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뒤에 뉘우친다[不孝父母死後悔] 둘째, 가족에게 친하게 대하지 않으면 멀어진 뒤에 뉘우친다[不親家族疏後悔] 셋째, 젊어서 부지런히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뉘우친다[少不勤學老後悔] 넷째, 편안할 때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으면 실패한 뒤에 뉘우친다[安不思難敗後悔] 다섯째, 재선이 풍족할 때 아껴쓰지 않으면 가난해진 뒤에 뉘우친다[富不儉用貧後悔] 여섯째,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뉘우친다[春不耕種秋後悔] 일곱째, 담장을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도둑맞은 뒤에 뉘우친다[不治垣墻盜後悔] 여덟째, 색을 삼가지 않으면 병든 뒤에 뉘우친다[色不謹慎病後悔] 아홉째, 술에 취해 망령된 말을 하면 술 깬 뒤에 뉘우친다[醉中妄言醒後悔] 열째,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떠난 뒤에 뉘우친다[不接賓客去後悔]

46 진무경(陳茂卿)의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 진백(陳柏)이 4연의 운문(韻文)으로 지은 잠언(箴言)이다. 본래 『시경』 「소완(小宛)」의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잠자서 날 낚으신 부모님 목디게 하지 말라[夙興夜寐 無忝爾所生]'에서 인용한 것으로 자신의 정신을 수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은 것이다. 진백은 호가 남당(南塘), 자가 무경으로, 송대(宋代)의 학자이다.

47 서원의—인 된다. 원문은 '院事齋事外 毋得人人私使喚 使怒罰'인데, 문맥 상 어색하므로 『퇴계집(退溪集)』 「이산학규(伊山院規)」에 '院事齋事外 毋得人人私使喚 毋得私怒罰'라고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여 번역하였다.

一、院屬人完恤 有司及諸生 常須愛護下人 院事齋事外 毋得人人私使喚 私使怒罰
서원에 소속된 사람들은 잘 돌보아준다. 유사와 제생은 항상 하인을 아끼고 보호해야 하며, 서원의 일과 서재의 일이 이 외에는 사람마다 사사로이 부러서는 안 되며, 개인적인 노여움으로 벌해서는 안 된다.⁴⁷

一、立院養士 所以奉國家右文興學作新人才之意 人宜盡心繼今莅者 必於院事 有增其制 無損其約 其於斯文 豈不幸甚
서원을 세워서 선비를 양성하는 것은 국가에서 문교(文教)를 숭상하고 학교를 일으켜 인재를 새로 양성하는 뜻을 받드는 것이니, 사람들은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야 한다. 이제부터 이 고을에 부임하는 자는 반드시 서원의 일에 대하여 반드시 그 제도는 증보하고 그 규약은 줄이지 말아야 하니, 그렇다면 사문(斯文)에 있어 어찌 다행이 아니겠는가.

一、童蒙非因受業與招致 不得入門內
어린 아이는 수업을 받거나 초청한 경우가 아니면 서원의 문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一、寓生 不拘冠未冠 無定額 成才迺升院
임시로 서원에 머무는 생도(生徒)는 관례(冠禮)의 여부와 상관없이 정해진 인원을 두지 않고 재목을 이루어야 서원에 오르도록 한다.

一、院之經始 期傳永久 若不以時修葺 易至墮廢 如有雨漏敗毀處 有司即申于官 及時修理
서원을 건립할 때에는 영구히 보존할 것을 기약하는데, 만약 제때에 보수하지 않는다면 쉽게 퇴락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만약 비가 새고 부서진 곳이 있다면 유사(유사)는 즉시 관(官)에 신고하여 제때에 수리를 하도록 한다.

一、凡院生及尋院士子謁廟時 以程子冠黑團領行禮 黑團領若無 則以紅團領無妨
원생(院生)과 서원을 심방(尋訪)한 선비는 사당을 알현할 때에 정자관(程子冠)과 흑단령(黑團領)을 차려입고 예를 행하되, 흑단령이 없는 경우에는 홍단령(紅團領)을 입는 것도 무방하다.

참고문헌

- 이정희, 「16·17세기 함양지역 재지사족의 동향」, 『이화사학연구』22(이화사학연구소, 1984)
- 김성우, 『조선 중기 국가와 사족』(역사비평사, 2001)
- 이수환, 『조선 후기 서원연구』(일조각, 2001)
- 송준식, 「남명학파의 서원건립운동」, 『남명학연구』15(남명학회, 2003)
- 박기용, 「교육 : 전통교육의 현장을 찾아서 ; 도학적 이상세계를 희구한 정여창-남계서원 편」, 『선비문화』2(남명학회, 2004)
- 윤상기, 「경남 함양군의 서원 판본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32(서지학회, 2005)
- 윤희면, 「경상남도 함양의 남계서원 연구」, 『남명학연구』26(남명학회, 2008)
- 노재현, 「치위와 화해의 개념으로 분석한 남계서원의 경관짜임」, 『韓國造景學會誌』37(한국조경학회, 2009)





行事

祭日丑前五刻掌饌寶饌具畢 贊引引初獻升自東階

點視陳設 祝隨之 祝開櫃 訖降詣門外位 亞獻

以下俱就門外位立定 贊引引初獻以下入就庭中位

北面西上諸生次之重行 贊引引祝及諸執事俱詣盥

洗位盥洗各就位 贊引進初獻之左白有司謹具請行

事 退復位 初獻以下皆再拜

行初獻禮 贊引引初獻詣盥洗位北向立 盥手 慨手

引詣 文獻公一蠹先生神位前北向跪 奉香奉香盒

跪進初獻之右 奉爐奉香爐跪進初獻之左 初獻三

上香 奉爐奠爐于神位前香卓上 奉香置盒于卓上

蘆溪書院春秋

享禮筭記

●
남계서원홀기
●

時日

每歲仲春仲秋中丁

齋戒

前祭三日祭員俱會散齋二日不縱酒不茹葷不與穢惡事

남계서원춘추향례홀기(濼溪書院春秋享禮笏記)

時日(시일)

- 每歲仲春仲秋中丁(매세중춘중추중정)
매년 중춘과 중추 중정일에 제향한다

齋戒(재계)

- 前祭三日 祭員俱會 散齋二日 不縱酒 不茹葷 不與穢惡事
(전제삼일 제원구회 산재이일 부종주 불여훈 불여예악사)
제향 3일 전에 제원이 모두 모여 산재 2일 한다. 술을 마시거나 냄새나는 푸새를 먹지 않으며 흥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 前祭二日 沐浴更衣 致齋一日(전제이일 목욕갱의 치재일일)
제향 2일 전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치제 1일 한다

行事(행사)

- 祭日丑前五刻 掌饌實饌具畢(제일축전오각 장찬실찬구필)
제향 당일 축시 5각 전에 장찬은 실찬(제물을 제기에 담음)을 마친다
- 贊引引初獻升自東階 點視陳設(찬인인초헌승자동계 점시진설)
찬인은 초헌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 진설을 점검하시오
- 祝隨之 祝開櫝(축수지 축개독)
축을 따라 올라 개독하시오
- 訖降詣門外位(홀강예문외위)
마치면 문외위로 내려가시오
- 亞獻以下俱就門外位 入定(아헌이하구취문외위 입정)
아헌 이하 모두 문외위에 나아가 입정하시오
- 贊引引初獻以下入就庭中位北面西上(찬인인초헌이하입취정중위북면서상)
찬인은 초헌 이하 제관을 묘정으로 인도하여 서쪽을 상위로 하여 북향하여 서시오
- 諸生次之重行(제생차지중행)
제생은 그 다음에 여러 줄로 서시오
- 贊引引祝及諸執事俱詣盥洗位盥洗各就位(찬인인축급제집사구예관세위관세각취위)
찬인은 축과 제집사를 관세위에 인도하여 관세하고 각자 자리에 나아가시오
- 贊引進初獻之左自右司謹具請行事(찬인진초헌지좌백유사근구청행사)
찬인은 초헌 왼쪽에 나아가 행사하기를 청하시오
- 退復位(퇴복위)
자리로 돌아가시오
- 初獻以下皆再拜(초헌이하개재배)
초헌 이하 모두 재배하시오

初獻禮(초헌례)

- 贊引引初獻詣盥洗位 北向立(찬인인초헌예관세위 북향립)
찬인은 초헌을 관세위에 인도하여 북향하여 서시오
- 盥手 盥手(관수세수)
손을 씻고 수건에 닦으시오
- 引詣文獻公一蠹先生神位前 北向跪(인예문헌공일두선생신위전 북향궐)
문헌공 일두선생 신위전에 인도하여 북향하여 꿇어앉으시오
- 奉香奉香盒跪進初獻之右(봉향봉향합궐진초헌지우)
봉향은 향합을 받들고 꿇어앉아 초헌의 오른쪽에 나아가시오
- 奉爐奉香爐跪進初獻之左(봉로봉향로궐진초헌지좌)
봉로는 향로를 받들고 꿇어앉아 초헌의 왼쪽에 나아가시오
- 初獻三上香(초헌삼상향)
초헌은 향을 세 번 사르시오
- 奉爐奠爐于神位前香桌上(봉로전로우신위전향탁상)
봉로는 향로를 신위전 향탁 위에 올려놓으시오
- 奉香置盒于桌上(봉향치합우탁상)
봉향은 향합을 향탁 위에 놓으시오
- 奉香奉爐俱復位(봉향봉로구복위)
봉향 봉로는 모두 자리에 돌아가시오
- 祝以幣籠授初獻(축이폐비수초헌)
축은 폐비를 초헌에게 드리시오
- 初獻執幣獻幣授祝(초헌집폐헌폐수축)
초헌은 폐를 받들어 헌폐하고 축에게 주시오
- 祝受幣奠于神位前籩豆之間(축수폐전우신위전변두지간)
축은 폐를 받아 신위전 변두 사이에 올리시오
- 初獻俛伏興 再拜(초헌면복흥 재배)
초헌은 엎드렸다가 일어나 재배하시오
- 次詣介庵先生神位前 東向跪(차예개암선생신위전 동향궐)
다음은 개암선생 신위전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으시오
- 奉香奉香盒跪進初獻之右(봉향봉향합궐진초헌지우)
봉향은 향합을 받들고 꿇어앉아 초헌의 오른쪽에 나아가시오
- 奉爐奉香爐跪進初獻之左(봉로봉향로궐진초헌지좌)
봉로는 향로를 받들고 꿇어앉아 초헌의 왼쪽에 나아가시오

- 初獻三上香(초헌삼상향)
초헌은 향을 세 번 사르시오
- 奉爐奠爐于神位前香桌上(봉로전로우신위전향탁상)
봉로는 향로를 신위전 향탁 위에 올려놓으시오
- 奉香置盒于桌上(봉향치합우탁상)
봉향은 향합을 향탁 위에 놓으시오
- 奉香奉爐俱復位(봉향봉로구복위)
봉향, 봉로는 모두 자리에 돌아가시오
- 祝以幣篚授初獻(축이폐비수초헌)
축은 폐비를 초헌에게 드리시오
- 初獻執幣獻幣授祝(초헌집폐헌폐수축)
초헌은 폐를 받아 헌폐한 후 축에게 주시오
- 祝受幣奠于神位前籩豆之間(축수폐전우신위전변두지간)
축은 폐를 받아 신위전 변두 사이에 올리시오
- 初獻俛伏興 再拜(초헌면복흥 재배)
초헌은 엎드렸다가 일어나 재배하시오
- 次詣文簡公桐溪先生神位前 西向跪(차예문간공동계선생신위전 서향궐)
다음은 문간공 동계선생 신위전에 나아가 서향하여 꿇어앉으시오
- 奉香奉香盒跪進初獻之右(봉향봉향합궐진초헌지우)
봉향은 향합을 받들고 꿇어앉아 초헌의 오른쪽에 나아가시오
- 奉爐奉香爐跪進初獻之左(봉로봉향로궐진초헌지좌)
봉로는 향로를 받들고 꿇어앉아 초헌의 왼쪽에 나아가시오
- 初獻三上香(초헌삼상향)
초헌은 향을 세 번 사르시오
- 奉爐奠爐于神位前香桌上(봉로전로우신위전향탁상)
봉로는 향로를 신위전 향탁 위에 올려놓으시오
- 奉香置盒于桌上(봉향치합우탁상)
봉향은 향합을 향탁 위에 놓으시오
- 奉香奉爐俱復位(봉향봉로구복위)
봉향, 봉로는 모두 자리에 돌아가시오
- 祝以幣篚授初獻(축이폐비수초헌)
축은 폐비를 초헌에게 드리시오

- 初獻執幣獻幣授祝(초헌집폐헌폐수축)
초헌은 폐를 받아 헌폐한 후 축에게 주시오
- 祝受幣奠于神位前籩豆之間(축수폐전우신위전변두지간)
축은 폐를 받아 신위전 변두 사이에 올리시오
- 初獻俛伏興 再拜(초헌면복흥 재배)
초헌은 엎드렸다가 일어나 재배하시오
- 贊引引初獻詣爵洗位 北向立(찬인인초헌예작세위 북향립)
찬인은 초헌을 작세위에 인도하여 북향하여 서시오
- 洗爵拭爵以授執事者(세작식작이수집사자)
작을 씻고 닦아 집사자에게 주시오
- 贊引引詣文獻公一蠶先生尊所 西向立(찬인인예문헌공일두선생준소 서향립)
찬인은 초헌을 문헌공 일두선생 준소에 인도하여 서향하여 서시오
- 奉爵以爵授初獻(봉작이작수초헌)
봉작은 작을 초헌에게 드리시오
- 司尊舉罍酌酒(사준거맥작주)
사준은 맥(덧개)을 들고 술을 따르시오
- 初獻以爵授奉爵(초헌이작수봉작)
초헌은 작을 봉작에게 주시오
- 引詣文獻公一蠶先生神位前 北向跪(인예문헌공일두선생신위전 북향궐)
찬인은 초헌을 문헌공 일두선생 신위전에 인도하여 북향하여 꿇어앉으시오
- 奉爵跪以爵授初獻 退復位(봉작궐이작수초헌 퇴복위)
봉작은 꿇어앉아 작을 초헌에게 드리고 물러나시오
- 初獻執爵三祭酒獻爵(초헌집작삼제주헌작)
초헌은 작을 들고 삼제주(모사에 술을 조금씩 세 번 부음)한 후 헌작하시오
- 奠爵受爵奠于神位前 退復位(전작수작전우신위전 퇴복위)
전작은 작을 받아 신위전에 올리고 물러나시오
- 初獻俛伏興 少退 北向跪(초헌면복흥 소퇴 북향궐)
초헌은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앉으시오
- 祝進詣初獻之左 東向跪 讀祝(축진예초헌지좌 동향궐 독축)
축은 초헌의 왼쪽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으시오
- 訖復位(홀복위)
독축이 끝나면 자리에 돌아가시오

- 初獻俛伏興 再拜(초헌면복흥 재배)
초헌은 엎드렸다가 일어나 재배하시오
- 贊引詣配位尊所 西向立(찬인인에배위준소 서향립)
찬인은 초헌을 배위 준소에 인도하여 서향하여 서시오
- 奉爵以爵授初獻(봉작이작수초헌)
봉작은 작을 초헌에게 드리시오
- 司尊舉罍酌酒(사준거며작주)
사준은 맥(덧개)을 들고 술을 따르시오
- 初獻以爵授奉爵(초헌이작수봉작)
초헌은 작을 봉작에게 주시오
- 引詣介菴先生神位前 東向跪(인에개암선생신위전 동향궐)
찬인은 초헌을 개암선생 신위전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으시오
- 奉爵跪以爵授初獻(봉작궐이작수초헌)
봉작은 꿇어앉아 작을 초헌에게 드리시오
- 初獻執爵三祭酒獻爵(초헌집작삼제주헌작)
초헌은 작을 들고 삼제주(모사에 술을 조금씩 세 번 부음)한 후 헌작하시오
- 奠爵受爵奠于神位前 退復位(전작수작전우신위전 퇴복궐)
전작은 작을 받아 신위전에 올리고 물러나시오
- 初獻俛伏興 再拜(초헌면복흥 재배)
초헌은 엎드렸다가 일어나 재배하시오
- 贊引詣配位尊所 西向立(찬인인에배위준소 서향립)
찬인은 초헌을 배위 준소에 인도하여 서향하여 서시오
- 奉爵以爵授初獻(봉작이작수초헌)
봉작은 작을 초헌에게 드리시오
- 司尊舉罍酌酒(사준거며작주)
사준은 맥(덧개)을 들고 술을 따르시오
- 初獻以爵授奉爵(초헌이작수봉작)
초헌은 작을 봉작에게 주시오
- 引詣文簡公桐溪先生神位前 西向跪(인에문간공동계선생신위전 서향궐)
인도하여 문간공 동계선생 신위전에 나아가 서향하여 꿇어앉으시오
- 奉爵跪以爵授初獻 退復位(봉작궐이작수초헌 퇴복궐)
봉작은 꿇어앉아 작을 초헌에게 드리고 물러나시오

- 初獻三祭酒獻爵(초헌삼제주헌작)
초헌은 작을 들고 삼제주(모사에 술을 조금씩 세 번 부음)한 후 헌작하시오
- 奠爵受爵奠于神位前 退復位(전작수작전우신위전 퇴복위)
전작은 작을 받아 신위전에 올리고 물러나시오
- 初獻俛伏興 再拜(초헌면복흥 재배)
초헌은 엎드렸다가 일어나 재배하시오
- 引降復位(인강복위)
자리에 돌아가시오

亞獻禮(아헌례)

- 贊引引亞獻詣盥洗位 北向立(찬인인아헌에관세위 북향립)
찬인은 아헌을 관세위에 인도하여 북향하여 서시오
- 盥手帨手(관수세수)
손을 씻고 수건에 닦으시오
- 引詣爵洗位 北向立(인에작세위 북향립)
작세위에 인도하여 북향하여 서시오
- 洗爵拭爵以授執事者(세작식작이수집사자)
작을 씻고 닦아 집사자에게 주시오
- 贊引引詣文獻公一蠹先生尊所 西向立(찬인인에문헌공일두선생준소 서향립)
찬인은 아헌을 문헌공 일두선생 준소에 인도하여 서향하여 서시오
- 奉爵以爵授亞獻(봉작이작수아헌)
봉작은 작을 아헌에게 드리시오
- 司尊舉罍酌酒(사준거맥작주)
사준은 맥을 들고 술을 따르시오
- 亞獻以爵授奉爵(아헌이작수봉작)
아헌은 작을 봉작에게 주시오
- 引詣文獻公一蠹先生神位前 北向跪(인에문헌공일두선생신위전 북향궐)
문헌공 일두선생 신위전에 인도하여 북향하여 꿇어앉으시오
- 奉爵跪以爵授亞獻 退復位(봉작궐이작수아헌 퇴복위)
봉작은 꿇어앉아 작을 아헌에게 드리고 물러나시오
- 亞獻執爵三祭酒獻爵(아헌집작삼제주헌작)
아헌은 작을 들고 삼제주(모사에 술을 조금씩 세 번 부음)한 후 헌작하시오
- 奠爵受爵奠于神位前 退復位(전작수작전우신위전 퇴복위)
전작은 작을 받아 신위전에 올리고 물러나시오

- 亞獻俛伏興 再拜(아헌면복흥 재배)
아헌은 엎드렸다가 일어나 재배하시오
- 贊引詣詣配位尊所 西向立(찬인인에배위준소 서향립)
찬인은 아헌을 배위 준소에 인도하여 서향하여 서시오
- 奉爵以爵授亞獻(봉작이작수아헌)
봉작은 작을 아헌에게 드리시오
- 司尊舉罇酌酒(사준거명작주)
사준은 맥(달개)을 들고 술을 따르시오
- 亞獻以爵授奉爵(아헌이작수봉작)
아헌은 작을 봉작에게 주시오
- 引詣介庵先生神位前 東向跪(인에개암선생신위전 동향궐)
개암선생 신위전에 인도하여 동향하여 꿇어앉으시오
- 奉爵跪以爵授亞獻 退復位(봉작궐이작수아헌 퇴복위)
봉작은 꿇어앉아 작을 아헌에게 드리고 물러나시오
- 亞獻執爵三祭酒獻爵(아헌집작삼제주헌작)
아헌은 작을 들고 삼제주(모사에 술을 조금씩 세 번 부음)한 후 헌작하시오
- 奠爵受爵奠于神位前 退復位(전작수작전우신위전 퇴복위)
전작은 작을 받아 신위전에 올리고 물러나시오
- 亞獻俛伏興 再拜(아헌면복흥 재배)
아헌은 엎드렸다가 일어나 재배하시오
- 贊引詣詣配位尊所 西向立(찬인인에배위준소 서향립)
찬인은 아헌을 배위 준소에 인도하여 서향하여 서시오
- 奉爵以爵授亞獻(봉작이작수아헌)
봉작은 작을 아헌에게 드리시오
- 司尊舉罇酌酒(사준거명작주)
사준은 맥(달개)을 들고 술을 따르시오
- 亞獻以爵授奉爵(아헌이작수봉작)
아헌은 작을 봉작에게 주시오
- 引詣文簡公桐溪先生神位前 西向跪(인에문간공동계선생신위전 서향궐)
문간공 동계선생 신위전에 인도하여 서향하여 꿇어앉으시오
- 奉爵跪以爵授亞獻 退復位(봉작궐이작수아헌 퇴복위)
봉작은 작을 아헌에게 드리고 물러나시오

- 亞獻三祭酒獻爵(아헌삼제주헌작)
아헌은 작을 들고 삼제주(모사에 술을 조금씩 세 번 부음)한 후 헌작하시오
- 奠爵受爵奠于神位前 退復位(전작수작전우신위전 퇴복위)
전작은 작을 받아 신위전에 올리고 물러나시오
- 亞獻俛伏興 再拜(아헌면복흥 재배)
아헌은 엎드렸다가 일어나 재배하시오
- 引降復位(인강복위)
자리에 돌아가시오

終獻禮(종헌례)

- 贊引引終獻詣盥位 北向立(찬인인종헌예관세위 북향립)
찬인은 종헌을 관세위에 인도하여 북향하여 서시오
- 盥手帨手(관수세수)
손을 씻고 수건에 닦으시오
- 引詣爵洗位 北向立(인예작세위 북향립)
작세위에 인도하여 북향하여 서시오
- 洗爵拭爵以授執事者(세작식작이수집사자)
작을 씻고 닦아 집사자에게 주시오
- 贊引引詣文獻公一蠶先生尊所 西向立(찬인인예문헌공일두선생준소 서향립)
찬인은 종헌을 문헌공 일두선생 준소에 인도하여 서향하여 서시오
- 奉爵以爵授終獻(봉작이작수종헌)
봉작은 작을 종헌에게 드리시오
- 司尊舉幕酌酒(사준거막작주)
사준은 막(덮개)을 들고 술을 따르시오
- 終獻以爵授奉爵(종헌이작수봉작)
종헌은 작을 봉작에게 주시오
- 引詣文獻公一蠶先生神位前 北向跪(인예문헌공일두선생신위전 북향궐)
문헌공 일두선생 신위전에 인도하여 북향하여 서시오
- 奉爵跪以爵授終獻(봉작궐이작수종헌)
봉작은 꿇어앉아 작을 종헌에게 드리시오
- 終獻執爵三祭酒獻爵(종헌집작삼제주헌작)
종헌은 작을 들고 삼제주(모사에 술을 조금씩 세 번 부음)한 후 헌작하시오
- 奠爵受爵奠于神位前 退復位(전작수작전우신위전 퇴복위)
전작은 작을 받아 신위전에 올리고 물러나시오

- 終獻俛伏興 再拜(종헌면복흥 재배)
종헌은 엎드렸다가 일어나 재배하시오
- 贊引詣配位尊所 西向立(찬인인에배위준소 서향립)
찬인은 종헌을 배위 준소에 인도하여 서향하여 서시오
- 奉爵以爵授終獻(봉작이작수종헌)
봉작은 작을 종헌에게 드리시오
- 司尊舉罍酌酒(사준거며작주)
사준은 맥(덧개)을 들고 술을 따르시오
- 終獻以爵授奉爵(종헌이작수봉작)
종헌은 작을 봉작에게 주시오
- 引詣介庵先生神位前 東向跪(인예개암선생신위전 동향궐)
개암선생 신위전에 인도하여 동향하여 꿇어앉으시오
- 奉爵跪以爵授終獻 退復位(봉작궐이작수종헌 퇴복위)
봉작은 꿇어앉아 작을 종헌에게 드리고 물러나시오
- 終獻執爵三祭酒獻爵(종헌집작삼제주헌작)
종헌은 작을 잡고 삼제주(모사에 술을 조금씩 세 번 부음)한 후 헌작하시오
- 奠爵受爵奠于神位前 退復位(전작수작전우신위전 퇴복위)
전작은 작을 받아 신위전에 올리고 물러나시오
- 終獻俛伏興 再拜(종헌면복흥 재배)
종헌은 엎드렸다가 일어나 재배하시오
- 贊引詣配位尊所 西向立(찬인인에배위준소 서향립)
찬인은 종헌을 배위 준소에 인도하여 서향하여 서시오
- 奉爵以爵授終獻(봉작이작수종헌)
봉작은 작을 종헌에게 드리시오
- 司尊舉罍酌酒(사준거며작주)
사준은 맥(덧개)을 들고 술을 따르시오
- 終獻以爵授奉爵(종헌이작수봉작)
종헌은 작을 봉작에게 주시오
- 引詣文簡公桐溪先生神位前 西向跪(인에문간공동계선생신위전 서향궐)
문간공 동계선생 신위전에 인도하여 서향하여 서시오
- 奉爵跪以爵授終獻 退復位(봉작궐이작수종헌 퇴복위)
봉작은 잔을 종헌에게 드리고 물러나시오

- 終獻三祭酒獻爵(종헌삼제주헌작)
종헌은 삼제주(모사에 술을 조금씩 세 번 부음)한 후 헌작하시오
- 奠爵受爵奠于神位前 退復位(전작수작전우신위전 퇴복위)
전작은 작을 받아 신위전에 올리고 물러나시오
- 終獻俛伏興 再拜(종헌면복흥 재배)
종헌은 엎드렸다가 일어나 재배하시오
- 引降復位(인강복위)
자리에 돌아가시오

飲福受胙(음복수조)

- 贊引引初獻詣飲福位 西向立(찬인인초헌예음복위 서향립)
찬인은 초헌을 음복위에 인도하여 서향하여 서시오
- 執事者一人以爵酌各位初獻之酒(집사자일인이작작각위초헌지주)
집사자 1인은 작에 각위 초헌 술을 따르시오
- 詣初獻之左 北向立(예초헌지좌 북향립)
초헌의 왼쪽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시오
- 初獻再拜 跪 受爵祭酒 啐酒奠爵于席前(초헌재배 꿇 수작제주 채주전작우석전)
초헌은 재배하고 꿇어앉아 작을 받아 맛을 본 다음 앞에 작을 놓으시오
- 執事者一人以俎進減各位前胙肉(집사자일인이조진감각위전조육)
집사자 1인은 조를 들고 나아가 각위의 조육을 조금씩 덜어 내시오
- 詣初獻之左 北向跪(예초헌지좌 북향궤)
초헌의 왼쪽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으시오
- 以胙授初獻(이조수초헌)
조육을 초헌에게 드리시오
- 初獻以胙授執事(초헌이조수집사)
초헌은 조육을 집사에게 주시오
- 初獻取爵飲卒爵(초헌취작음졸작)
초헌은 작을 들고 다 마시시오
- 執事者受虛爵復於坫(집사자수허작복어점)
집사자는 빈 작을 점(받침) 위에 돌려놓으시오
- 執事者以俎降自東階出(집사자이조강자동계출)
집사자는 조를 들고 동계로 내려가시오
- 初獻俛伏興 再拜(초헌면복흥 재배)
초헌은 엎드렸다가 일어나 재배하시오

- 引降復位(인강복위)
자리에 돌아가시오
- 在位者皆再拜 初獻不拜(재위자개재배 초헌불배)
재위자는 모두 재배하시오 (초헌은 절하지 않음)

撤籩豆(철변두)

- 祝升詣神位前(축승예신위전)
축은 올라 신위전에 나아가시오
- 奉籩豆各一少移故處(봉변두각일소이고처)
변두를 각각 하나씩 옮겨 놓으시오
- 降復位(강복위)
자리에 돌아가시오
- 初獻以下皆再拜(초헌이하개재배)
초헌 이하 모두 재배하시오
- 祝取幣祝板就望座位西向 焚瘞于坎 復位(축취폐축판취망예위서향 분예우감 복위)
축은 폐와 축판을 거두어 망예위에 나아가 서향하여 태워서 감(구녕이)에 묻고 자리에 돌아가시오
- 贊引進初獻之左白禮畢(찬인진초헌지좌백예필)
찬인은 초헌의 왼쪽에 나아가 예필을 아뢰시오
- 祝闔櫝(축합독)
축은 합독하시오
- 贊引引初獻以下出(찬인인초헌이하출)
찬인은 초헌 이하 모두 인도하여 나가시오
- 掌饌率其屬撤禮饌(장찬솔기속철예찬)
장찬은 소속원을 인솔하여 예찬을 거두시오
- 闔戶以降(합호이강)
문을 닫고 내려가시오

남계서원 춘추향례의절(濳溪書院春秋享禮儀節)

時日(시일)

- 春秋二仲中丁(춘추 이중중정)
춘추 중월 중정일에 향사한다

齋戒(재계)

- 前享禮五日 行事執事官散齋三日(전향례오일 행사집사관산재삼일)
제향 3일 전에 제원이 모두 모여 산재 3일 한다
- 三日不縱酒茹葷 不弔喪問疾不與穢惡事(삼일부종주어훈 부조상문질불여에악악사)
3일간 술을 마시거나 냄새나는 추새를 먹지 않고 문상이나 병고 문상이나 병문안 하지 않으며 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 前二日 沐浴更衣 俱詣祠所致齋二日(전이일 목욕갱의 구에사소치재이일)
제향 2일 전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모두 사소에 가서 치제 2일 한다
- 分定 不出入(분정 불출입)
제관을 분정하고 바깥으로 출입하지 않는다
- 有司掃除祠之內外(유사소제사지내외)
유사는 사당의 내외를 청소한다
- 洗滌祭器(세척제기)
제기를 세척한다
- 獻官率諸執事習儀(헌관솔제집사습의)
헌관은 제집사를 거느리고 습의를 한다
- 祝習書式讀祝及視幣(축습서식독축급시폐)
축은 서식 및 독축을 연습하고 폐백을 살핀다
- 執禮習唱笏(집례습창홀)
집례는 창홀을 연습한다
- 惟享禮事得行其餘悉禁(유향례사득행기어실금)
오로지 향례에 관한 일만 행하고 다른 모든 것을 금한다

省牲禮(성생례)

- 前一日香牲至門(전일일향생지문)
하루 전에 향과 희생이 문에 이른다
- 謁者白(알자백)
알자가 아른다
- 初獻及諸執事俱以禮服祇迎于門外(초헌급제집사구이에복지영우문외)
초헌과 제집사는 모두 예복을 갖추고 문밖에서 맞이한다

- 香及祭物先入(향급제물선입)
향과 제물을 먼저 들인다
- 奉香掌饌受之 奉列于正門樓上(봉향장찬수지 봉렬우 정문루상)
봉향과 장찬이 받아 정문 누상에 진열한다
- 初獻以下點閱視至訖(초헌이하점열시지홀)
초헌 이하 점열한다
- 諸執事奉置于典祀廳(제집사봉치우전사청)
제집사는 전사청에 봉치한다
- 牲則置于壇上(생즉이우단상)
희생을 성생단상에 올려놓는다
- 贊引引初獻巡牲三匝(찬인인초헌순생삼잡)
찬인은 초헌을 인도하여 희생 주위를 세 바퀴 돈다
- 祝隨之(축수지)
축은 뒤따른다
- 獻官立於牲南北向(헌관입어생남북향)
헌관은 희생의 남쪽에서 북향하여 선다
- 祝立於牲東西向(축입어생동서향)
축은 희생의 동쪽에서 서향하여 선다
- 執事者奉水盥立于祝之右(집사자봉수반입우축지우)
집사자는 수반(대야)을 받들고 축의 오른쪽에 선다
- 祝注水三滴(축주수삼적)
축은 물을 세 번 뿌린다
- 進獻官之左白充(진헌관지좌백충)
헌관의 왼쪽에 나아가 '충'이라고 아뢰는다
- 獻官答曰臚(헌관답왈돌)
헌관은 '돌'이라고 답한다
- 掌牲領牲詣庖所(장생영생에주소)
장생은 희생을 포소로 데려간다
- 諸執事省割牲(제집사할생)
제집사는 희생을 잡는 것을 살핀다
割以七體兩髀兩肩兩脇正脊(할이칠체양비양견양협정척)
양쪽 넓적다리, 양쪽 어깨, 양쪽 옆구리와 척추 일곱 부분으로 가른다

- 詣廚所視牲滌漑(예주소시생척개)
주소(부엌)로 가서 희생을 씻는 것을 살핀다
- 奉置于典祀廳(봉치우전사청)
전사청으로 봉치한다
- 執事者布席于堂之左右(집사자포석우당지좌우)
집사자는 당의 좌우에 자리를 깐다
- 獻官及執事以次列坐(헌관급집사이차열좌)
헌관과 집사는 차례로 앉는다
- 庭中布新潔席(정중포신결석)
정중에 깨끗한 자리를 깐다
- 筆硯在東 祝紙板在西(필연재동 축지판재서)
붓과 베틀은 동쪽에, 축지와 축판은 서쪽에 놓는다
- 設盥洗于東階上(설관세위동계상)
동계 위에 관세를 설치한다
- 祝盥手洗手北向跪(축관수세수북향궐)
축은 손을 씻고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 裁紙依式 眞楷正書訖(재지의식 진해정서홀)
종이를 법식에 맞게 따름하여 해서로 정서한다
- 獻官再詳審視(헌관재상심시)
헌관은 다시 상세히 살핀다
- 祝奉置于典祀廳卓上(축봉치우전사청상)
축은 전사청 탁상에 봉치한다

陳設(진설)

- 丑前五刻執事者設燭于神位前卓上左右(축전오각집사자설축우신위전탁상좌우)
축시 전 오각에 집사자는 신위전 탁상 좌우에 촛불을 켜다
- 設燎于庭(설료우정)
묘정에 햇불을 설치한다
- 設卓二於神位卓之前(설탁이어신위탁지전)
신위 탁자 앞에 탁자 두 개를 설치한다
香卓在左 爐卓在右(향탁재좌 로탁재우)
향탁은 왼쪽에 향로탁은 오른쪽에 설치한다
- 拈二於香卓之左右(점이어향탁지좌우)
향탁좌우에 점(번침)을 두 개 설치한다

幣篚站在東西向(폐비점재동서향)

폐비 받침은 동쪽에서 서향하여 둔다

祝板站在西東向(축판점재서동향)

축판 받침은 서쪽에서 동향하여 둔다

- 設正位尊所犧尊二爲一重(설정위준소희준이위일중)

정위 준소에는 희준 둘을 설치한다

一實明水爲上尊(일실명수위상준)

하나는 명수를 담아 상위에 놓는다

一實法酒初獻酌之(일실법주아중헌작지)

하나는 법주를 담아 초헌 때에 작주한다

- 配位尊所象尊二爲一重(배위준소상준이위일중)

배위 준소에는 상준 둘을 설치한다

一實明水爲上尊(일실명수위상준)

하나는 명수를 담아 상위에 놓는다

一實法酒亞終獻酌之(일실법주아중헌작지)

하나는 법주를 담아 아헌·중헌 시에 작주한다

- 在庭上東南隅北向西上皆有站 加勺簋(재정상동남우북향서상개유침 가작떡)

묘정상 동남쪽 모퉁이에 서쪽을 상위로 북향하며 모두 작(국자)과 떡(달걀)을 함께 놓는다

- 洗二於東階之東(세이어동계지동)

동계의 동쪽에 세 둘을 설치한다

盥洗在東 爵洗在西(관세재동 작세재서)

관세는 동쪽에 작세는 서쪽에 설치한다

盥在洗東 加勺(뢰제세동 가작)

뢰는 세의 동쪽에 설치한다

篚在洗西 實巾(비재서서 실건)

비는 세의 서쪽에 설치한다

爵洗篚則又實以爵 加坩(작세비족우실이작 가점)

작세비에 작과 점을 담는다

- 設獻官位於庭中(설헌관위어정중)

묘정 가운데에 헌관위를 설치한다

- 大祝執禮位於獻官之稍後(대축집례위어헌관지초후)

대축 및 집례위를 헌관의 바로 뒤쪽에 설치한다

• 唱筭位二(창홀위이)

창홀위를 둘 설치한다

—在阼階上西向(일재조계상서향)

하나는 조계(동계) 위에 서향하여 설치한다

—在祠門內西向(일재사문내서향)

하나를 사당 문 밖에 서향하여 설치한다

• 贊引判陳掌牲掌饌司尊司饗奉香奉爐奉爵典爵位於大祝之後 皆重行北向西上

(찬인판진장생장찬사준사뢰봉향봉로봉작전작위어대축지후 개중행북향서상)

찬인, 판진, 장생, 장찬, 사준, 사뢰, 봉향, 봉로, 봉작, 전작위는 대축의 뒤에 서쪽을 상위로하여 북향하여 여러 줄로 설치한다

• 學生位於庭東北向(학생위어정동북향)

학생위는 묘정 동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 飲福位於東序西向(음복위어동서서향)

음복위는 동서에 서향하여 설치한다

• 皆布席爲位(개포석위위)

모두 포석을 깔아 자리를 만든다

• 開瘞坎於祠宇之北壬地方深取足容物南出陞

(개예감어사우지북임지방심취족용물남출계)

사우의 북쪽 임지에 사각으로 물건을 묻을 수 있을 정도로 깊게 예감(구덩이)을 파는데 남쪽으로 계단이 있다

• 望瘞位於瘞坎之南(망예위어예감지남)

예감의 남쪽에 망예위를 설치한다

• 判陳設幣篚各一於神位之左拈(판진설폐비각일어신위지좌점)

판진은 각 신위의 좌우 점(받침)에 폐비를 각각 하나씩 놓는다

• 幣以白絹長一丈八尺(폐이백견 장일장팔척)

폐는 흰 명주로 하며 길이는 1장 8척이다

• 祝板於神位之右拈(축판어신위지우점)

축판은 신위의 오른쪽 점(받침) 위에 올려놓는다

• 設四籩於神位之左以右爲上(설사변어신위지좌이우위상)

신위의 왼쪽에 오른쪽을 상위로 하여 4변을 진설한다

• 掌饌實之(장찬실지)

장찬은 제수를 담는다

- 第一行棗在前栗次之(제일행조재전울차지)
제1행에 조(대추)를 앞에 놓고, 울(밤)을 그 다음에 놓는다
- 第二行鹿脯在前魚脯次之(제이행녹포재전어포차지)
제2행에 녹포를 앞에 놓고, 어포를 그 다음에 놓는다
- 四豆於神位之右以右爲上(사두어신위지우이우위상)
신위의 오른쪽에 오른쪽을 상위로 하여 4두를 진설한다
- 第一行芹菹在前菁菹次之(제일행근저재전청저차지)
제1행에 근저를 앞에 놓고, 청저를 그 다음에 놓는다
- 第二行鹿醢在前魚醢次之(제이행녹해재전어해차지)
제2행에 녹해를 앞에 놓고, 어해를 그 다음에 놓는다
- 俎一在籩豆間(조일재변두간)
조(도마)는 변두 사이에 하나를 진설한다
- 實以牲腥七體 兩髀在上端 兩肩兩脇次之 脊在中
(실이생성칠체양비재상단 양견양협차지 척재중)
생고기 칠체(일곱 부위)를 담는데 양비를 상단에, 양견·양협을 그 다음에 척추를 가운데에 놓는다
- 簋一在籩前 實以粱(보일재변전 실이량)
보를 변의 앞에 하나 놓는데, 량을 담는다
- 簋一在豆前 實以黍(괘일재두전 실이서)
괘를 두의 앞에 하나 놓는데, 서를 담는다
- 幣籠在神位之左籩豆間(폐비재신위지좌변두간)
폐미는 신위의 왼쪽 변두 사이에 놓는다
- 爵在簋前籩豆間(작재보괘전변두간)
작은 보괘 앞 변두 사이에 놓는다

滋溪書院春秋 享禮筭記

滋溪書院春秋 享禮儀節